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상담자가 지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인식탐색: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하여



2021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교육컨설팅학과

구 미 정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상담자가 지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인식탐색: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하여

지도교수 천성문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교육컨설팅학과

구 미 정

구미정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2월 19일



위 원 장 교육학박사 원 효 헌



위 원 교육학박사 박 은 아



위 원 교육학박사 천 성 문



목 차

표 목차	iii
그림 목차	iv
국문초록	v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3. 용어의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9
1. 전문상담사	9
2. 전문상담사의 전문성	13
3. 개념도 방법	21
III. 방 법	24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4
2. 연구절차	26
IV. 결 과	33
1. 상담자가 지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진술문	33
2.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의미	38

3.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노력	52
V. 논 의	68
참고문헌	78
Abstract	87
부록	
1. 진술문 카드 분류	89
2. 평정질문지	90
3. 면접 참여 동의서	96

표 목차

표 1. 진술문 분류 및 평정 과정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	25
표 2.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의미 최종 진술문	33
표 3.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노력 최종 진술문	35
표 4.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의미에 대한 초심상담자의 군집과 핵심문장 ·	40
표 5.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의미에 대한 숙련상담자의 군집과 핵심문장 ·	47
표 6.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노력에 대한 초심상담자의 군집과 핵심문장 ·	54
표 7.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노력에 대한 숙련상담자의 군집과 핵심문장 ·	62



그림 목차

그림 1. 개념도 연구절차	26
그림 2.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의미에 대한 초심상담자의 개념도	39
그림 3.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의미에 대한 숙련상담자의 개념도	46
그림 4.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노력에 대한 초심상담자의 개념도	53
그림 5.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노력에 대한 숙련상담자의 개념도	61



상담자가 지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인식탐색: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하여

구 미 정

부경대학교 대학원 교육컨설팅학과

지도교수: 천성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심상담자와 숙련된 상담자들이 지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인식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가 직접 의미 있는 범주로 개념들을 분류함으로써 특정 현상에 대하여 참여자들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념도(Concept Mapping)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가 지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는 어떤 상담사인가, 둘째,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의 인식에 차원, 군집, 중요도는 어떠한가이다. 개념도 연구를 위해 초심상담자와 숙련 상담자 16인의 인터뷰내용을 바탕으로 의미문장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진술문 카드로 제작하여 다시 상담자 16인에게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게 하고 분류된 범주를 명명하는 구조화 작업을 하였다. 또한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각 진술문의 중요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 (Professional Qualities)대 인간적 자질(Human Qualities)’차원과 ‘상담자의 자기 성장에 초점(Counselor’s Self-Generation Focused)대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초점(Client Problem-Solving Focused)’차원과 같이 2개의 차원으로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인식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와 연구 참여자들이 선택

한 범주의 수 및 다차원 척도 분석 결과로서 지도상의 진술문들의 분포를 고려하였을 때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4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셋째, 각 진술문들이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해 평정한 결과 4개의 군집에 걸쳐 평균 3.97의 평정치가 부여되었다.

본 연구는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어온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개념들을 종합하고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개념도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실제로 상담자가 지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인식을 현상학적으로 탐색하였다. 동시에 양적 분석을 통해 그 경험에 녹아 있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인식을 차원과 군집, 중요도로 확인하고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의 인식 차이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상담자의 인식탐색으로 추후 상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실무자들의 필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척도 개발 시 구성 요소를 채택하는데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상담자, 유능한 전문상담사, 개념도

I. 서론

본 장에서는 초심상담자와 숙련된 상담자들이 지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인식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문제와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자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복지 상담시설인 사랑의 전화가 발간한 ‘2019 사랑의 전화 상담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 상담을 한 2503명 중 20%(507명)가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함으로 한국인의 고민 1위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신 건강 문제를 호소해 오는 한국인들의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갈수록 심리적 건강 상태가 위험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상담은 스스로 건디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험에 접촉하고 그 경험을 받아들여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치료 과정을 거친다. 이는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것과는 달리 전문가로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안전한 치료적 공간을 제공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공유하며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천성문, 2006). 그러므로 상담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증가하고 대중화와 보편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상담이 단순히 정보를 얻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닌 보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적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Pica(1998)는 상담자들이 만나는 내담자들은 매

우 복잡한 존재이며 그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 또한 복잡성과 애매모호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대구 지하철 화재,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및 세월호 참사와 같은 외상이후의 심리적 장애나 청소년 및 자살 문제에 전문적인 상담사의 투입으로 상담이 생명과 건강, 안전에까지 직결되는 분야로 상담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그에 따른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상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문적인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에 맞는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해 상담관련학회와 기관들이 크게 늘어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김인규, 2018). 이렇게 상담이 사회적 관심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상담사의 자격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심각한 경우 10분만 투자하면 ‘심리상담사1급’이라는 자격증을 발급해주기도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상담사’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를 제외하면 모든 상담 자격증은 국가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발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되지 않은 민간자격으로 질적인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상담자 양성과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오히려 상담의 발전과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도 있다(김인규, 2009).

상담의 전문성을 획득하고 성장해야하는 시대적 요구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상담서비스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 전문상담사로서의 효율적인 질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이형국, 2017). 상담의 전문성 문제는 심리적 불편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보다 전문적인 상담으로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에게 이로운 성과가 있어야 함으로 성과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상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상담자, 내담자,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있는데, 상담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상담자 자신이며, 가장 강력한 기법은 상담자의 능력(Corey & Corey, 2002)이라고 할 만큼 상담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상담자는 그자체로 치료적 도구(Fulton, 2016)이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충분한 변화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상담자의 전문성 향상은 상담 성과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다. 상담자로서 전문성을 획득하고 성장하는 것은 험난한 길을 따라가는 멀고 긴 하이킹과 같으며(Skovholt, 2003), 모든 상담자가 이러한 발달 단계를 잘 통과하지 못한다(Ronnestad & Skovholt, 1992). 상담자가 어떤 전문적 자질을 갖추었느냐에 따라 같은 상담기법을 사용하여도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를 수 있다(김계현, 1992). 전문성이 결여된 채 상담이 보편화되면 내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대중에게 비전문가로 신뢰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로써, 상담자들은 전문성 발달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실습을 받으며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골고루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상담사로서의 자질은 전문교육과 수련만으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교육과 수련과정을 밟는다고 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발달하는 것도 아니다. 상담자의 거뒀된 발달이 있을 수 있으며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게 될 수 있으므로 상담자가 잘 발달된 상태여야함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상담자는 전문상담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문직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함정화, 여한구, 2019).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은 상담자에게 안정적인 틀을 제공하여 전문 상담자 자신의 일과 삶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자기-가치, 자기-자신감 등과 유능감과 같은 하위요인들로 구성된다. 또한 전문가로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인식하고 있던 자신에 대한 의문과 불확실감을 경험하면서 알지 못했거나 알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문제에 대해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필연적으로 자기개념과 신념을 촉진시키며 중요한 요소인 유능감이 함께 강조된다(Charms, 1968; Deci, 1975). 상담자로서 내부적 자기 평가인 유능감은 자신의 역량에 대한 지각과 평가를 의미한다(Harter, 1983). 즉,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적 이해로 상담자가 자기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시키려는 동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아영, 2010). 이러한 발달 과정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내재화와 개별화 과정을 통해 전문상담사로 성장하게 된다.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상담자 발달과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계현(1992)의 연구를 시작으로 상담자 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측정도구의 개발(심홍섭, 1998), 상담자 발달 수준에 따른 차이를 경험적으로 밝히는 연구(문수정, 1999), 상담자 발달 수준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는 연구(김진숙, 2001; 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2003), 상담자의 발달 수준의 하위요인들을 유목화한 연구(나현미, 정남운, 2016), 상담자 발달 수준을 고려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이명우, 연문희 2004), 국내·외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한 최한나(2005)와 정문주, 조한익(2016)의 연구 등이 있다.

특히, 상담성과를 가져오는 치료적 요인에 관한 연구로는 상담성과 및 도움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강현주, 장성숙, 2006), 상담전공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국 상담에서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상담자 요인을 탐색, 귀납 분석한 연구(김창대, 한영주, 손난희, 권경인, 2009)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상담성과를 가져오는 치료적 요인 중 상담자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상담자 발달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과 상담자를 발달시

킬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의 적용은 상담 효과성과 전문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고 볼 수 있다(최한나, 2005).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교육과 교육 요구 분야가 주를 이룬 학문적이고 이론적 연구로 상담 현장에서의 실무자인 상담자 본인이 생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경험적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문적이고 유능한 전문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교육과 전문적인 훈련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유능한 전문상담사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상담자가 지각하는 효과적인 상담 특성을 알고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전문 상담사로서의 방향성과 발달의 깊이가 다를 수 있다(권경인, 김창대, 2007).

본 연구는 상담자가 유능한 전문상담사로서 어떠한 해야 한다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론적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는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관점에서 유능한 전문상담사는 어떤 상담자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상담자의 경력에 따른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지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의미와 노력에 대해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의 경력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담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방법론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개념도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상담자가 지각하고 있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즉, 주관적 인식에 대한 의견 수렴을 개별적 접근을 통한 질적과 양적인 데이터를 근간으로 보편적 혹은 일반적 접근을 가능케 하는 개념도 연구방법의 적용을 통해 인지 구조를 탐색하고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연구 참여자가 직접 의미 있는 군집으로 개념들을 분류함으로써 특정한 현상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개념적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ane & Trochim, 2006). 또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잘 밝혀지지 않은 미지 분야의 탐색에 유용하다는 점에서 개념도 방법은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담자가 지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인식을 현상학적으로 탐색하면서 동시에 양적 분석을 통해 그 경험에 녹아 있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인식을 차원과 군집, 중요도로 확인하고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의 인식 차이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능한 전문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경험적 자료로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교육과 연수프로그램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상담자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연구문제 2.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의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차원과 군집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의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중요도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상담자 지각, 전문상담사, 개념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가. 상담자 지각

‘지각(perception)’의 사전적 의미는 ‘알아서 깨달음, 또는 그런 능력, 감각 기관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함’이다(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1999).

본 연구에서의 상담자 지각은 상담자의 경험세계에 대한 인식차원으로 상담자가 상담에서 알아서 깨닫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전문상담사

전문상담사는 인간의 심리적 문제나 사회적응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 전문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문상담사는 상담관련 학과에서 대학원 이상 수학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교육을 받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상담수련을 거쳐서, 상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상담자를 의미한다.

다. 개념도

개념도(concept mapping)란 전체 자료 내에 포함된 개념들을 규정하고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들로부터 가장 구체적이고 특정한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위계적인 배열과 그 개념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조직화 한 것이다(Novak, 1991).

본 연구에서의 개념도는 구조화된 개념화 과정의 한 방법으로 주관적 경험과 관점을 면접 참여자들이 직접 자신의 의미체계를 활용하여 범주를 구성해 냄으로써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시적이고 명료한 인식구조를 탐색(민경화, 최윤정, 2007)하는 것을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전문상담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전문상담사의 정의와 역할을 살펴보고, 전문상담사의 전문성과 발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전문상담사

상담사(Counselor)란 개인 및 가족, 조직의 심리, 정서, 관계, 문화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심층적인 내면을 탐색하며, 이로써 내담자의 사고, 행동,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어 문제 진단을 하고, 심리검사, 상담프로그램 등, 도구나 상담기법을 활용하여 예방 교육, 발달 지도 및 치유 활동을 하는 자(한국표준직업분류, 2018)를 말한다.

상담관련 학회에서는 내담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을 증진하는 복지를 가장 우선시하고, 내담자의 성장과 사회공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한국상담심리학회, 2018; 한국상담학회, 2018)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상담사란 인간의 개인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갈등에 놓인 내담자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돕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상담사의 이러한 활동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가지게 되고 전문상담사로 성장할 수 있다.

상담의 주체로서 상담자는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상담자 자신이다”라는 말로 대표되기에(Corey & Corey, 2002),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과 성장을 조력하기 위해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하고,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 자체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인간적 자질 또한 갖추어야 한다. 전문상담사의 자질을 크게 인간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형득, 1992; Nystul, 2006).

첫째, 인간적인 자질로는 내담자에 대한 믿음을 줌으로써 내담자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내담자의 긴장을 풀어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상담의 어려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실패의 경험을 상담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전문상담사는 상담의 도구가 된다는 점과 그 핵심에는 인간적 수양이라는 점이 있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자기성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두 번째, 전문적 자질로는 전문상담사는 상담에 대한 이론적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상담경험으로 쌓이면서 전문상담사가 자신의 이론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담 이론의 개발은 사실 어렵고 기존의 개발된 이론들을 완전히 이해하여 자신만의 스타일로 상담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문상담사가 가진 전문적 자질 중 실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론적 틀에 따라 기존 이론을 합친 경우를 포함하여 자신이 현재 선택한 이론으로 상담과정을 효과적이고 능수능란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전문상담사는 어떤 상담 기법을 아는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다룰 줄 알아야 하며, 다룰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주어진 여건에 따라 가장 적절한 상담 기법을 의도적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김인규, 이미현, 정보인, 2013). 상담사와 내담자의 상담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상담사 자신이라고 하는 이유(Skovholt, 2011)에서 보면 상담자의 역할은 치료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담 기법을 활용하더라도 내담자에게 맞게 새롭게 창조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상담사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담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어야 한다. 전문상담사가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이 적용하고 있는 상담 기법을 포함한 상담 이론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을 가지고 더 타당성이 있고 효과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최연화, 양명숙, 2013). 전문상담사는 자신이 개발하였든 선호하는 이론이든 상담 이론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완벽한 상담 이론은 없으며, 모든 내담자에게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론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문상담사는 자신이 적용하고 있는 이론에 따라 상담을 하면서도 그 이론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있어야 하며, 말 그대로 이론은 검증을 위한 과정들을 거쳐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전문상담사들은 상담의 특성상 고도의 지식과 기술, 경험을 갖추어야하고 효과적인 상담 장면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담자 자신이 치료적 도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한다. 이는 상담자가 중요한 변인으로 상담에서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홍지영, 유정이, 김진희, 2018). 이렇게 상담의 성과는 어떤 접근의 상담을 하느냐보다는 어떤 상담자인지가 관련 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Crits-christoph & Mintz, 1991; Luborsky, McClellan, Diguier, Woody, & Seliegan, 1997; Huppert et al, 2001). 따라서 상담자는 자신을 이해한 만큼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성장한 만큼 내담자를 성장시킬 수 있으므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상담사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즉, 정체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이장호, 정남운, 조성호, 2005). 정체성은 한번 발달하였다고 하여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위협받고 흔들릴 수 있는 역할 갈등 및 혼란을 경험할 수 있기에 상담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 상담사가 전문가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수련

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만 한다. 상담을 실제로 계속하지 않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상담 과정에 대해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 전문상담사는 곧 한계에 맞닥뜨린다. 자신의 실제 상담 능력에 대해 점검하고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이형득, 1992; Nystul, 2006). 이때 전문상담사는 유능감을 갖고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Goodyear, 2014).

한 사람의 유능한 전문상담사가 되기 위해 전문성 향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담자가 전문지식과 기술을 축적해나가야 한다는 선행 조건과 더불어 전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핵심 요소인 유능감을 발달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상담사의 유능감(Competence)이란 내담자에게 적합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해 상담에 필요한 지식, 기술과 태도를 반영하는 상담 전문가로서의 전체적인 적합성을 뜻한다(Rubin, 2007). 즉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소통, 지식, 기술, 임상적 추론 정서, 가치, 그리고 성찰 능력을 신중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Epstein & Hundert, 2002)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유능감에 대한 욕구는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내재적 동기화 되며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인해 내재적 동기는 감소된다는 지각된 유능감에 대한 연구가 있다(Vallerand & Reid, 1984). 그리고 전문가로서 상담자는 자신의 상담 유능감을 향상하고 유지하고자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APA의 윤리강령에 명시되어있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2). 국내에서는 효능감과 역량이라는 개념어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전문상담사에게 유능감에 대한 윤리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이론적 지식, 전문적 실습, 교수 상담활동,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한다. 상담자는 자신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에 참여한다.’로 명시되어있다(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2018).

이렇게 상담유능감은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체득하고 있어야 하는 지식적 유능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갖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기술적 유능감, 상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전이를 인식하고 이를 다루는 태도적 유능감이 포함되어 있기에 상담성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상담자요인으로 전문성과 직결된다(우사라, 2015). 유능감은 상담 전문가로서의 능력에서 획득되어야 할 필수적인 부분으로 그 맥락을 함께 함으로써(심홍섭, 1998), 전문 상담사라면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능감을 갖고 있어야하며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도 있어야 한다(Goodyear, 2014). 이로써 전문상담사로서의 성장과 발달은 유능감과 전문성 발달로 그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2. 전문상담사의 전문성 발달

상담자는 상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통합하여 상대 불안을 해결하고, 내담자와의 상담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경계선을 발달시키고, 이론적 방향을 선택하여 자신만의 상담스타일을 찾아가는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전문성을 익히게 된다. 전문상담사의 ‘전문’은 전문직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며 ‘연속적인 과정/평생과정(Continually Becoming)’으로 학위과정의 시작에서부터 상담을 그만두는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을 갖는다(노미화, 최연실 2017). 초심상담자가 상담을 수행하면서 경험이 쌓일수록 현장에서 습득한 새로운 행동과 정서가 발달하는데, 그 과

정에서 정체성 혼란 및 충격 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 때 상담자는 상담기술과 유능감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감이 강화되면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고 하였다(Auxier 2003).

이러한 전문직 정체성은 전문직 자아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전문직 자아개념(Professional self-concept)이란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느낌과 견해로 전문직 종사자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정신적인 지각을 의미한다(백은주, 2016). 전문상담사인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에 관한 자아개념을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있으며, 개인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심리적 동기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체성의 발달은 상담자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변화를 가지게 된다. 초심상담자들은 슈퍼바이저, 멘토링, 및 동료 슈퍼비전 등을 통해 자기 자신을 검증하고, 숙련 상담자들은 지속적인 학습과 상담을 하며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발달시키게 되며, 전문가 단계에서는 일에 대한 현실 감각을 갖추고,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스스로를 검증하게 된다고 하였다(Moss, 2014).

전문성의 구성요소에는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 문제해결능력이 포함된다. 전문가가 보유하는 지식과 경험은 역할 특수성을 가지며, 상담한 시간 동안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성찰과정을 통해 축적되며, 문제해결 능력을 지식과 경험의 결합으로 해당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길러진다(문현기, 2015; 오현석 외, 2009; 유선옥). 이에, 전문가의 특징으로는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나며 광범위하고 의미 있는 형태를 인지한다. 초심자보다 수행이 신속하며 남다른 기억력을 갖고, 깊고 중요한 수준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한다. 문제를 통찰하는 시간을 갖고 강한 자기 점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전문상담사를 Profession Counselor라고 하며, 전문적 상담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일상적인 관계에서가 아닌 전문적인 관계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이재창, 1996). 상담자의 전문성은 상담자가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정도를 말하며, 전문성의 개념에 대해(Knox, 1980)는 자기 확신감, 열정, 개방적 태도, 창의성으로 보았고, Frensch와 sternberg(1989)는 경험과 훈련을 통해 획득되고 숙달되는 능력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경험과 훈련을 강조한다.

상담자의 전문성을 정의하기 위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초기에 이루어진 연구들로는 초보 상담자와 숙련된 상담자의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들인데 두 집단 간의 차이를 통해 전문성 개념에 접근하였다. 초보상담자들은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고 훈련받은 상담기술을 사용하려고 하는 반면, 숙련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상담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보다 상담성고가 높다고 보고 하였다(Cummings, 1993). 그리고 초심상담자는 열정적으로 이론적 지식을 열심히 습득하지만 실제 상담 장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어려움으로는 숙련상담자에 비해 내담자에 대한 알아차림이 부족하고, 상담과정과 상담기술에 대한 수행에 걱정이 많다.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Dodge, 1982)하는 초심상담자는 개념화한 내담자의 모습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므로 소진을 경험하며 상담 수행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서 내담자에 대한 통찰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된다(Hill, Charless, & Reed, 1981).

상담에 대한 전문성은 역동적인 발달과정을 거치므로 전문성발달에 대한 초기연구와 더불어 상담자의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위한 수퍼비전과 상담자 발달 연구들로 시도되었다.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과정은 상담연구의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며,

현재까지는 주로 발달과정에서 드러나는 핵심요소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중 Skovholt와 Ronnestad(1992)는 5년간 100명의 상담자 및 심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상담전문가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들을 정리하였다. 핵심적인 두 가지 분류로는 독립적인 상담자로 성장해 가는 개별화(individuation)과정과 성장 과정(Process)자체로 나누어진다.

개별화란 상담과 관련된 지식 상담자로서의 역할, 내담자에 대한 개념화 등에 대해 본인만의 고유한 인식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동적으로 학습한 전문지식으로부터 자신만의 이해의 틀을 형성하고 주체적으로 지식을 통합해 가는 여정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장 과정 자체의 특징과 관련된 것이다. 초심상담자들은 슈퍼바이저, 교수, 동료 상담자, 내담자들에 영향을 받고 동시에 이론과 연구, 본인의 사생활,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같은 확대된 영역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아울러 상담자로 성장하는 과정은 일정한 학습과정을 따르지만 개인마다 성장에 필요한 시간이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성장은 천천히, 그러면서도 갑작스럽게 일어나지만 초심상담자일 때 경험하게 되는 불안은 점차 편안함과 자신감으로 대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Skovholt와 Ronnestad(1992)가 상담자 성장과정이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고 장기간 진행되는 개별화 과정임을 밝혔다면, Jennings, Goh, Skovholt, Hansen 및 Banerjee-Steven(2003)는 상담자의 성장과정에서 네 가지 핵심적인 요인들을 정리하였다.

먼저, 첫 번째는 경험(experience)이다. 상담자의 경험이 쌓여 갈수록 방대한 양의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그 지식을 활용함에서 일정한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여러 변인들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게 된다(Martin, Slemmon, Heibert, Hallberg, & Cumming, 1989). 두 번째 요인은 상담자 개인의

성격특징(Personal characteristics)이다. 상담자의 성격을 내담자와의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이는 다시 상담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Luborsky, Mclellan, Woody, O'Brien, & Auerbach, 1985). 숙련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가치를 부여하면서도 겸손하게 노력하고, 자신을 드러내면서도 고독을 즐기는 등 모순되는 듯 하지만 유연한 성격과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통합적 성격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Skovholt, Jennings, & Mullenbach, 2004). 세 번째 핵심요소는 미국심리학회에서 교육, 연구, 실습 등에 걸쳐 최근 강조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차이를 존중할 수 있는 능력(cultural competence)이다. 그리고 네 번째 요인은 상담자가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인내하는 능력이다. 이처럼 상담자로 성장하는 과정은 다양한 경험, 상담자 자신의 성격, 문화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발달 과정을 거친 상담자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Skovholt와 Jennings(2005)는 전문상담자들을 면담함으로써 그들의 인지적, 정서적 및 관계적인 특성을 구분하였다. 먼저, 인지적인 특성으로는 상담자들은 지속적인 학습을 중요시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모호한 문제에 좌절하기보다는 이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한다. 두 번째는 정서적 특징인데, 상담자들은 자신에 대해 자각하고 성찰하며, 방어적이지 않고 타인의 피드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 또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전문가로서의 삶이 일관적이 되도록 노력하며, 내담자에게 더 나은 성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정서적인 건강에도 관심을 가진다. 끝으로, 관계적인 측면에서 상담자들은 좋은 대인관계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이 말을 잘 들어주고, 관찰하며 그들의 복지를 중요시한다. 이들은 이를 통해 상담 장면에서 효율적인 작업동맹을 형성하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상담자의 전문적 특성을 인지, 정서, 관계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

펴보는 통합적 관점과 지식, 기술, 자기 자각의 요인이라는 슈퍼비전의 훈련 요소는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해의 틀을 제공해 준다. 끊임없이 학습하는 인지적 특성, 스스로를 성찰하고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정서적 특성,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 대인 관계적 특성을 보유하고 아울러 내담자의 구체적인 내용 중심의 사례개념화를 하기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사례개념화를 하는 능력을 계발하여야 한다.

상담자의 발달 연구는 상담자 요인이 상담 과정에서 치료적 요인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연구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담자의 발달 연구들로는 주로 상담자의 발달 단계 수준에 따른 자기 대화, 역전이 관리능력, 알아차림, 사례 개념화 등의 차이에 대한 연구(손은정, 이해성, 2002; 손진희, 김계현, 2001; 천성문, 최명식, 2001)가 진행되어 왔다. 그 대부분이 상담자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상담사 교육 및 슈퍼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둔, 전문가로서의 임상적 기술을 살펴보는 양적 연구들이 많았다. 상담자 발달을 위한 교육 발달 단계에 따른 범주는 기준에 따라(심홍섭, 1998) 상담대화기술, 알아차리기, 사례이해, 상담계획, 인간적 윤리적 태도의 다섯 가지 유목화 단계로 나누는 방법과 실습 준비기와 실습수련기, 자기 수련기의 세 가지로 상담사교육 발달 단계에 다른 범주를 기준으로 하는 연구들이 있다(김계현, 문수정, 2000).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상담자의 전문가적인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인적인 상담자의 발달 과정에 대한 경험적인 부분에 대한 깊은 연구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상담자의 전 생애적 발달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또는 전문가적, 종합적인 발달이 필요하며 전인적인 상담자 발달을 강조한다. 상담자 발달 모델의 핵심은 상담자 발달이 전 생애적으로 지속적인 수련과 임상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면, ‘전문가적 자기 발달’과 ‘개인적 자기발달’이

통합되어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어간다는 것이다(Skovholt & Ronnestad, 1992). 상담자는 개인적인 삶과 전문가로서의 삶이 통합된 전문상담자로서 발달해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 생애발달적 관점의 상담자 이해는 전문성과 개인적 특성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된 상담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준다.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은 멈춤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으로 보며, 상담자의 숙련과 전문성 연구에서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험의 확장, 의지의 성장, 일하는 환경의 개방, 성찰이 필수적이며, 초기에는 확실성을 추구하지만, 숙련도가 올라갈수록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다고 하였다. 전문적 삶의 단계가 한사람의 개인적 삶의 단계와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 상담자는 자기 성찰을 통해 전문성 발달을 도모하고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방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며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보에 집중하고 파악하는 등 내담자의 다양한 측면들을 지각하는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김진숙, 2006).

초심상담자들은 내담자를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부족한 것으로 살펴진다. 초심상담자들이 겪는 상담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에 반해 숙련상담자들은 발달과정에서 축적된 인지적, 정서적, 태도적 특성들을 바탕으로 질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내담자 강점과 활용방안을 제안하고 있다(Skovholt, 2005).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와의 상담 수행의 차이에 대한 인지적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여 Chi와 그의 동료들(1988)은 영역에 관계없이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들의 인식적 수행상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일반화시켰다. 숙련상담자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효율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커다란 의미 있는 패턴으로 바르게 지각하며 적은 오류 하에서 기

능을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단기기억력과 장기기억력이 초심상담자들에 비해 뛰어나고 문제를 깊은 수준으로 보고 표상하며 재인지 과정을 거치며 문제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자기 검토능력(self-monitoring skill)이 우수하다. 초심상담자들이 숙련상담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역 특수적(Domain specific)지식의 차이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부분의 차이가 있으며, 전문지식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 해결 상황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으려면 많은 지식을 형성하는 것 뿐 만아니라, 내담자의 상황에 적합한 인식구조를 거쳐 공감을 통한 촉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바 상담자의 발달은 우연으로 시작되었건 의도적이건 상담사가 된 후의 상담자 전문성 발달의 과정은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달라질 수 있다.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은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 획일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한사람의 상담자가 전문성 발달을 이루는데 있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준다. 상담 장면에서의 전문성은 단순한 양적, 시간적 성장을 뛰어넘은 역동적이고 복잡한 현상이다. 경험과 훈련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상담전문가로서 성장하는 과정은 발달과정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거나 상담자의 발달을 이론화하는 연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잘 이해 될 수 있다.

이로써 상담자가 유능한 전문상담사로 성장하고 발달 되어가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지각하고 있는 인식을 경험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게 한다. 전문상담사로서 분명한 역할 인식과 더불어 전문성 발달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에 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개념도 방법

개념도(concept Mapping)는 코넬 대학의 William Trochim(1989)에 의해 개발된 방법론으로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도출된 아이디어를 범주화하여 표현하도록 고안된 구조화된 연구 방법의 하나로,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사용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법이다(Kane & Trochin, 2007).

인간은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개념을 사용하는 개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참여자 관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다시 다변량통계분석을 이용하여 검증된 통찰을 제공하는 방법으로서(최윤정, 2019), 연구 참여자로부터 얻은 질적 자료를 양적 통계 기법으로 분석하여 소수의 관점을 무시하지 않고 다수의 관점을 분석하여 보여주는 장점을 가진다(Trochim, 1989).

즉, 개별적 관점으로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생각을 탐색하고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2차원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때 다차원적도 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한다(최윤정, 2019). 개념도 연구 방법은 특히 관심 대상의 인식을 탐색하고 귀납적으로 기술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민경화, 최윤정, 2007). 인간의 내면 인식의 구조를 탐색한 후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개념도는 그 특성상 환자 및 내담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현상학적 탐색 연구가 요구되는 분야인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상담, 정신 건강, 의학, 사회복지,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김영진, 2015).

개념도 방법의 절차상 가장 큰 특징은 기초자료 제시와 최종결과물을 얻기 위한 자료조직화 과정에 연구 참여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기존 이론의 제약이나 연구자 시각의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사전 참조자료나 확립된 이론 체계가 부족한 분야의 탐색단계 연구에 적합하며, 양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Johnsen, Biegel, & Shafran, 2000; 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통계적으로 다차원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과 위계적 군집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며, 피험자들의 특정경험과 관련한 내용영역과 해당 구성 요소를 개념도라는 최종 결과물로 제시해 주는데, 이는 요인분석과 유사한 것으로 차원과 데이터 집합의 하위요인들을 공간적으로 산출해 내는 것이다. 개념도에 나타난 범주의 위치 및 중요도 등을 통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특정 주제와 관련한 인지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정찬석, 2005).

개념도 방법의 연구절차로는 Kane과 Trochim(2007)이 제시한 개념도 방법에 근거하여 다섯 단계의 절차를 구성할 수 있다. 첫째, 개념도 준비단계로 연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연구 주제로부터 질문지를 제작한다. 질문지는 하나의 초점질문을 개발할 수 있고, 반 구조화된 형태의 가이드라인 형식으로도 제작할 수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연구자는 이 아이디어를 종합 및 편집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에서 연구 목적에 맞는 진술문들을 추출하고, 추출한 진술문들을 정리한다. 그 후 다시 연구자의 전문가 집단이 진술문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최종 진술문을 정리한다(김영주 외, 2013). 셋째, 진술문을 구조화하는 단계로, 두 번째 단계에서 추출한 진술문을 중심으로 분류카드를 만든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을 다시 만나 구조화 작업을 설명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 이해하는 범주로 카드를 분류한다. 이때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나 공감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할 수 있다. 넷째, 개념도 분석 단계로 다차원 척도법과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s)을 실시한다. 다차원 척도법으로는 진술문을 좌표 상에 점으로 구현하는데 이때, 빈번하게 같이 묶인 진술문들은 서로 가까이에 위치한다(Kane, 2007). 계층적 군집분석을 활용하면 좌표 상에 위치한 점들을 내적으로 일관된 군집으로 분류할 수 있다. Kane(2007)는 개념도 연구에서 범주를 결정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제안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계층적 군집분석인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범주를 결정하기도 한다(이동귀, 강승림, 박종철, 이수지, 손하림, 2019). 다섯째, 개념도를 해석하는 단계이다. 개념도를 해석하고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밝힘으로써, 향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Ⅲ. 방 법

본 장에서는 연구문제 검증을 위한 연구대상, 절차 및 자료처리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가. 연구 참여자

개념도 연구방법에서 연구 참여자의 수를 크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과 진술문 범주화 작업이 가능한 정도로 참여자를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10명에서 20명 정도를 참여 대상으로 한다고 보고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수를 최소 10명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다(Trochim, 1989).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한국심리학회 및 산하 학회(임상 및 상담) 소속으로 상담 및 임상심리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남성 2명과 여성 14명으로, 연령은 최소 30세에서부터 최대 57세까지 분포하며 평균 44.8세이다. 학력은 석사 졸업 3명, 박사과정 5명, 박사 수료 4명, 박사 졸업 4명이다. 소속기관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학 상담센터 5명, 사설상담시설 6명, 국가기관 상담실 2명, 초중고 상담실 3명이다. 초심상담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 과정이고, 숙련상담자는 대표 자격 하나를 기준으로 할 때 전문상담사 1급 4명, 전문상담사 2급이 1명, 임상상담사 2급 1명, 청소년상담사 1급 1명, 가족상담사 1명으로 집계되었다.

진술문 분류 및 평정 과정 참여자들의 인적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진술문 분류 및 평정 과정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

(N=16)

내용	사례 수	
성별	남	2명
	여	14명
연령	최소 30세	평균 44.8세
상담 경력	5년 이하 (초심자)	7년 ~ 25년 (숙련자)
최종학위	석사학위	3명
	박사과정	5명
	박사수료	4명
	박사졸업	4명
소유자격증 (대표자격증)	전문상담사 1급	4명
	전문상담사 2급	1명
	청소년상담사 1급	1명
	청소년상담사 2급	1명
	임상상담사	1명
근무지	대학 상담기관	5명
	사설 상담센터	6명
	국가기관 상담실	2명
	초·중·고등학교 상담실	3명

나. 전문가 집단

연구절차에 따라 초점질문 제작, 진술문 통합 및 편집, 차원명과 범주 명 합의 등의 과정에 자문을 제공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총 3명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1인은 상담심리전문가이자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며, 개념도 방법을 사용한 연구경험이 있는 상담경력 10년의 상담심리 전문가이다. 나머지 2인은 상담심리사로서 박사 수료와 박사 과정생으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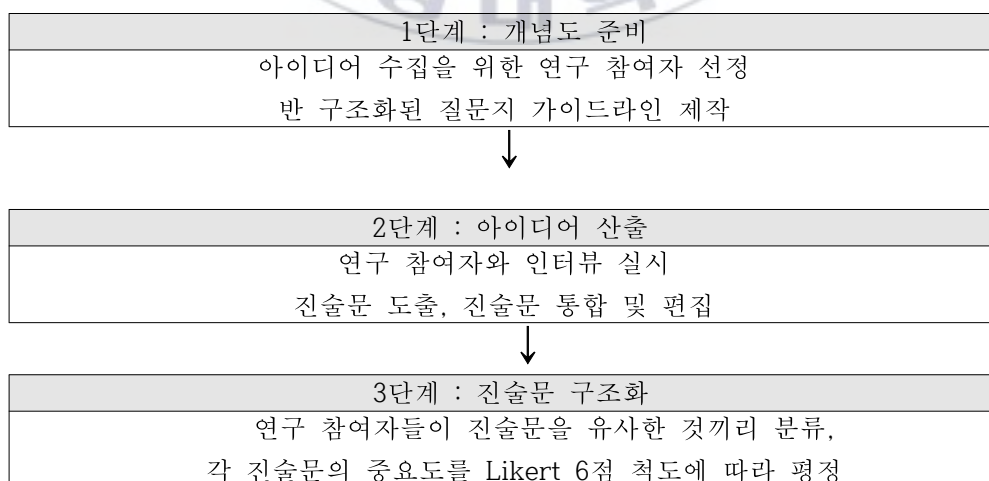
전문가 집단은 아이디어 산출을 위한 초점질문과 추가질문 도출과정에서 이론적 개념과 효과적인 인터뷰를 위한 질문양식을 제공하였다. 아이디어 산출 후 비슷한 의미를 가진 문장끼리 통합하고 참여자의 경험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대표문장 선정 과정에도 함께 참여하며 자료처리 과정에 객관성

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연구 절차

Kane과 Trochim(2007)의 개념도 연구절차를 재구성하여 5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 개념도 준비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자료 수집을 위해 초점 질문을 도출하였다. 2단계 아이디어 산출 단계에서 추출하였다. 3단계 최종 진술문 구조화 단계에서는 추출한 진술문을 통합하고 편집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최종 진술문을 의미상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여 이름 붙이고, 중요도를 평정하였다. 4단계 개념도 분석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분류한 결과를 모아 유사성행렬표로 변환하고 다차원 척도법을 실시한 후 분석하였다. 마지막 5단계 해석 단계에서는 분석된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ane과 Trochim(2007)의 연구 절차를 재구성하여 그림 1과 같이 다섯 단계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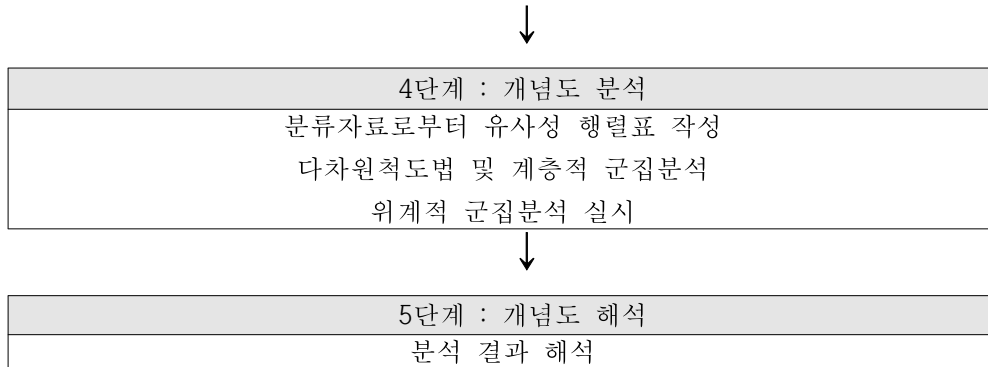


그림 1. 개념도 연구절차

가. 1단계: 개념도 준비

(1) 연구 참여자 선정

상담관련 자격을 취득을 위해 1년 이상 상담 경험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5년 이하의 초심상담자 8명과 상담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다양한 상담 사례를 가지고 있는 숙련상담자 8명을 선정하였다.

(2) 초점 질문 설정

진술문 도출을 위한 인터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초점질문을 작성하였다. 상담자가 지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진술문 도출을 위해 전문상담사와 상담자 요인에 관련 문헌을 참고로 질문지 초안을 구성하였다. 질문지 초안의 이론적 개념과 인터뷰 질문 형식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받아 연구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음과 같은 초점 질문을 설정하였다.

“상담자가 지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는 어떤 상담자입니까?”

위의 초점질문을 통해 상담자 스스로가 생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의미와 노력에 대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경험을 지각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참여자에게는 세부적인 질문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2단계: 아이디어 산출

아이디어 생성을 위해 연구 참여자 16명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여 “유능한 전문상담사로 인식하는 경험 내용을 직접 추출하였다. 사전에 부록의 연구 참여 안내 및 동의서를 제시하여 연구 목적 및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질의와 우려사항에 대한 응답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이를 잘 이해하고 자발적 의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는 2020년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3주간에 걸쳐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1:1로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면접 질문 목록에 제한되지 않고 상담자의 인식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질문하였다. 사전 동의를 통해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인터뷰 진행시간을 50분에서 90분이 소요되었다. 인터뷰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거주지 인근 또는 근무지에서 이루어졌다.

Hill은 질적 인터뷰를 할 때 초기에 브레인스토밍을 하여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고 연구자가 구체화시키며 진행하면 더욱 깊이 있고 풍부한 경험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Hill, 2005). 이에 본 연구자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적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촉진적 개입은 연구 참여자들이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의 상담 경험 속에서 새로운 인식이 도출될 수 있도록 도왔고, 몇몇은 평소 상담자로서 상담 경험에 대해 이전에 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핵심문장을 바탕으로 진술문을 통합하고 편집하는 과정에는 연구자와 전문가 집단 4인, 총 5인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 16명과의 1:1 인터뷰가 종결된 후 녹음 내용을 축어록으로 작성한 후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의미와 노력에 관한 문장을 220개를 추출하였다. 진술문 통합 및 편집 과정에서 전문가 3인의 자문을 얻어 공통된 의미를 내포한 문장들끼리 묶어 총 83개의 진술문으로 통합하였다. 83개의 진술문은 Kane과 Trochim(2007)의 진술문 축약 정리 지침에 따라 통합하고 편집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한 핵심어를 선택하여 반복되는 아이디어들을 연구자가 1차적으로 평가, 분류하였다. 둘째, 전문가 집단과 함께 아이디어를 핵심어와 주제에 기초하여 조직화하는 작업을 2차에 걸쳐 진행하며 보완하였다. 셋째, 묶여진 진술문 목록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 연구자가 함께 그 적절성을 논의하여 진술문들을 대표하는 표현을 합의하였다. 이때 대표 문장은 연구 참여자들의 살아있는 언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넷째,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 비슷한 개념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분리된 진술문은 한 문장으로 합쳤다. 다섯째, 진술문의 명료성을 높이기 위해 내담자들의 생생한 언어는 살리면서 문장구조와 맞춤법의 적절성을 고려한 문장 편집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전문가 집단의 상담심리 전문가이자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교수 1인에게 최종 검토를 받아 최종 진술문 83개(의미 42개, 노력 41개)를 도출하였다.

다. 진술문 구조화

진술문 구조와 및 중요성 평정 단계에서는 인터뷰에 참여했던 연구 참여자들에게 추출된 83개의 최종 진술문을 유사한 의미끼리 분류하고 각 문항의 어려움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진술문 유사성 분류를

위하여 83개의 진술문 카드를 제작하였다. 이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시하고 유사한 의미의 카드끼리 분류하도록 하였다. 카드 분류법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최종 진술문을 비슷한 내용까지 분류하되, 하나의 범주에 둘 이상의 문장이 들어가야 하며, 하나의 범주에 모든 문장이 들어갈 수 없다는 제약을 두었다(Paulson & Worth, 2002). 분류가 끝난 뒤 각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제목 또는 주제를 명명하도록 하고, 진술문에 대한 평정작업을 실시하였다. 83개의 진술문들이 인식하는 중요도의 정도를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진술문 분류 및 평정 작업은 약 2주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개인당 평균 40분에서 90분이 소요 되었다. 구조화 작업에 사용된 작업지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유사성 평정 작업은 다차원적 분석을 위한 비유사성 자료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이를 토대로 Excel에서 유사성 행렬표를 작성하였다.

라. 개념도 분석

개념도 제작을 위한 3단계 분석과정을 거쳤다. 먼저, 유사성을 근거로 진술문을 분류한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유사성 행렬표를 작성하고 이를 취합하여 집단 유사성 행렬표를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집단 유사성 행렬표를 자료로 하여 다차원 척도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차원적도 분석을 통해 산출된 진술문의 x, y 좌표값을 이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단계별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유사성 행렬표 작성

다차원척도법 분석에 사용된 개인 유사성 행렬표를 만들기 위해서, Excel에서 코딩과정을 거쳤다. 같은 범주로 묶인 핵심문장들은 1, 다른 범주로

묶인 핵심 문장들을 0으로 코딩하였는데, 예를 들어 1번 참여자가 7번과 13번 진술문을 같은 범주로 분류하였을 때 7번과 13번은 1로, 같은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진술문은 0으로 코딩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한 2개의 42X42, 41X41의 개인유사성 행렬표를 합산하여 다차원척도 분석을 위한 집단 유사성 행렬표를 제작하였다.

(2) 다차원척도법 실시

위 과정에서 제작된 유사성 행렬표를 다차원척도법에 사용되는 비유사성 행렬표로 변환한 후, SPSS 22.0에서 ALSCAL을 통한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 진술문들이 X, Y 좌표값을 지닌 점으로 지도 위에 어느 곳에서 위치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얻어냈다. 이때 같은 범주로 묶인 진술문들은 지도상에서 서로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

(3) 위계적 군집분석 실시

마지막으로 다차원척도법에 의해 산출된 각 점들의 좌표값을 이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개념도를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를 유용하게 분석할 수 있는 Ward 연결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지도상에 점으로 표시된 최종 진술문들이 내적으로 일관된 군집으로 범주화되었고, 같은 범주로 묶인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개념도를 완성하였다.

마. 개념도 해석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 해석의 일반적인 세 과정에 따라 개념도를 해석하였다. 첫째, 진술문의 지도상 분포를 살펴보고 범주 배치의 기준이 되는 잠

재적 차원의 축을 밝히는 작업을 거쳤다. 다음으로 각 범주의 관계를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중요도 평정 결과를 통해 범주의 중요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해석 단계는 연구결과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IV. 결 과

본 장에서는 상담자들이 생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의미와 노력에 대한 핵심문장들은 각각 42개, 41개로 최종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1. 상담자가 지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진술문

상담자가 지각하는 유능한 상담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16명을 모집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축어록으로 전사하였으며, 축어록에서 최초 진술문 220개를 추출하였다

진술문 통합 및 편집 과정에서 전문가 3인의 자문을 얻어 공통된 의미를 내포한 문장들끼리 묶어 총 83개의 진술문으로 통합하였다. 83개의 진술문은 Kane과 Trochim(2007)의 진술문 축약 정리 지침에 따라 통합하고 편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전문가 집단의 상담심리 전문가이자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교수 1인에게 최종 검토를 받아 최종진술문 83개(의미 42개, 노력 41개)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진술문은 다음의 표 2,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의미 최종 진술문

1	상담이론에 대해 충분히 습득하고 이를 상담 장면에서 활용한다.
2	상담자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동료 상담자와 공유한다(비밀 보장을 유지)
3	다른 상담자에게 상담을 조언을 해 줄 수 있다(비밀 보장을 유지)
4	상담자로서 내담자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5	상담 장면에서의 내담자의 저항을 치료적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적절한 질문을 통해 내담자의 저항을 잘 다룰 수 있다.
7	유능한 상담사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 내담자 스스로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8	상담사례 구조화를 통해 내담자가 호소하는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운다.
9	내담자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한다.
10	내담자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한다.
11	내담자의 삶을 온전하게 느끼고 이해하며 공감한다.
12	유능한 상담사는 상담 장면에서의 역전이를 알아차리고 이를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13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14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을 돌보는 힘이 있는 상담자이다.
15	상담자는 끊임없이 자기분석을 통해 자신을 알아차리는 수련을 한다.
16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을 끊임없이 갖고 닮는 자기 수련을 한다.
17	상담자는 상담 장면에서의 역전이를 알아차리고 이를 통한 자기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18	상담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와 노력으로 새로운 이론, 상담기법 등을 익혀야 한다.
19	상담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의 축적으로 감수성과 통찰력이 있다.
20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을 모두 비우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로 내담자를 만난다.
21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와 평등한 존재라는 마음으로 내담자를 만나야 한다.
22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를 변화시키고 도울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갖지 않는다.
23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한계를 인정한다.
24	유능한 상담사는 일상생활과 상담 장면에서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한다.
25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버려준다.

26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의 태도를 갖는다.
27	유능한 상담사는 상담을 통해 자기성장을 경험한다.
28	상담자는 상담을 통한 지식과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할 수 있다.
29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긍정적인 자원을 찾아내고 이를 상담의 치료적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0	상담경력이 쌓이는 것만으로 숙련자가 되고 유능해질 수 있다.
31	상담자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야만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32	상담자는 자신의 인간적, 기술적, 경험적 면을 모두 상담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
33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의 기준에서 내담자를 바라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한다.
34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좋은 모델링 대상이 된다.
35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표현으로도 내담자를 이해하고 알아준다.
36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실수보다 유능한 모습, 경험 많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37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38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39	유능한 상담사는 수용적인 언어로 내담자와 신뢰관계를 맺는다.
40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끌어 내 줄 수 있는 상담자이다.
41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내담자 스스로 어려움을 적절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상담자이다.
42	상담자는 인간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야 한다.

표 3.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노력 최종 진술문

1	상담자는 상담 장면에서 적용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을 받으며 지식을 가진다(비밀보장을 유지)
2	상담자는 다양한 상담이론과 기법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이론과 기법을

	찾는다(비밀보장을 유지)
3	상담자는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이론과 기법이 아니더라도, 내담자의 특성에 맞는 이론과 기법을 적용한다.
4	효과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 상담경험(케이스)을 늘리고자 노력한다.
5	상담자 자기 이해를 위한 교육 분석을 꾸준히 받는다.
6	상담자는 자신의 상담에 대한 슈퍼비전을 꾸준히 받는다.
7	내담자에 대한 역전을 알아차리기 위한 자기점검이 필요하다.
8	상담자는 다양한 심리검사 실시와 집단상담의 참여를 통해 유능한 상담사로 성장한다.
9	내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수용적인 언어로 내담자를 대한다.
10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공감을 한다.
11	내담자의 언어를 왜곡하지 않고 적절한 공감적 질문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도록 한다.
12	상담자는 자신을 지각하고 자기 수련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13	내담자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끼기 위해 상담자 스스로 '나를 비우려는' 노력을 한다.
14	다양한 상담경험을 바탕으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내담자에게 맞는 접근법을 찾는다.
15	내담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호소문제와 감정에 집중하고,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16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 상담자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수용한다.
17	유능한 상담사는 상담 전, 상담에 대한 구조화 작업을 통해 내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18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이 내담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정한다.
19	상담자는 사례개념화를 통해 내담자의 핵심문제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20	내담자의 사소한 감정에도 머무를 수 있는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훈련을 한다.
21	내담자의 비언어적 표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면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다.
22	내담자가 가진 강점을 찾아 상담 장면에서 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3	내담자와 상담 시, 다양한 상담기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다.

24	내담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수용 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25	내담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자신의 감정을 찾아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을 이끌어간다.
26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지금-여기에서의 상태를 지각하고 머무르게 돕는다.
27	내담자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효과적인 치료계획을 세운다.
28	상담자는 내담자의 근기(자아강도)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개입을 하는 능력을 기른다.
29	내담자의 연령이나 수준에 맞는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0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의 감정과 역동을 알아차리기 위해 항시 자기 자각과 자기 점검을 한다.
31	상담자의 끊임없는 자기 수련하게 되면 내담자와의 신뢰감을 형성에 도움이 된다.
32	상담자는 일치된 생각과 표현으로 내담자와 소통할 수 있다(진솔성)
33	내담자의 호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 정서에 맞는 상담 방법을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4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하고 이끌어가는 상담을 하지 않는다.
35	내담자의 이야기에만 따라가는 상담보다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36	상담자의 성공적인 상담기법을 내담자에 상관없이 주로 적용한다.
37	상담자는 전문적 상담 기술보다, 내담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38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입보다는 내담자의 문제에 함께 머물러준다.
39	판단하지 않고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상담자가 되기 위해 상담자의 틀(고정관념)을 깨야한다.
40	상담자로서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솔직히 인정한다.
41	상담자로서 인간을 같은 존재로 바라보는 인간애와 상담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의미

연구에 참여한 초심상담자들이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의미에 대한 42개 핵심문장을 몇 개의 범주로 분류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최소 3개에서 최대 4개($M = 3.88$, $SD = .35$)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개념도 분석 절차의 첫 단계로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e; MDS)을 실시한 결과, 우선 이차원 평면상에 제시된 응답들의 위치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제 핵심문장들 간 거리와 추정된 거리 사이의 불일치 정도를 보여주는 표준화 잔차제곱합인 스트레스 값(stress value)을 확인하였다. 스트레스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취하는데, 0에 가까울수록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Gol & Cook, 2004). 그 결과가 초심자의 유능한 전문상담사 의미에 대한 핵심문장 자료의 스트레스 값은 .22로 개념도를 위한 MDS 분석에 적합한 스트레스 값의 평균 범위인 .21 ~ .37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ane & Trochim, 2007). 이를 통해 초심상담자의 유능한 전문상담사 의미에 대한 자료가 개념도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차원척도법을 통해 2차원(x, y축) 좌표 값을 산출한 후, 이 값을 이용해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핵심문장들이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에서 나타난 군집화 계수(agglomeration coefficients)의 증가분을 살펴본 결과, 4-5개 군집일 경우에 변화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집화 계수의 변화폭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4개 군집이 차별적 특성과 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 초심상담자들이 생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 의미에 대한 핵심문장들의 분류로 4개 군집을 채택하였다. 초심상담자들이 생

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의미에 대한 핵심문장들의 군집을 2개 차원 (X축, Y축)의 평면 좌표에 표시한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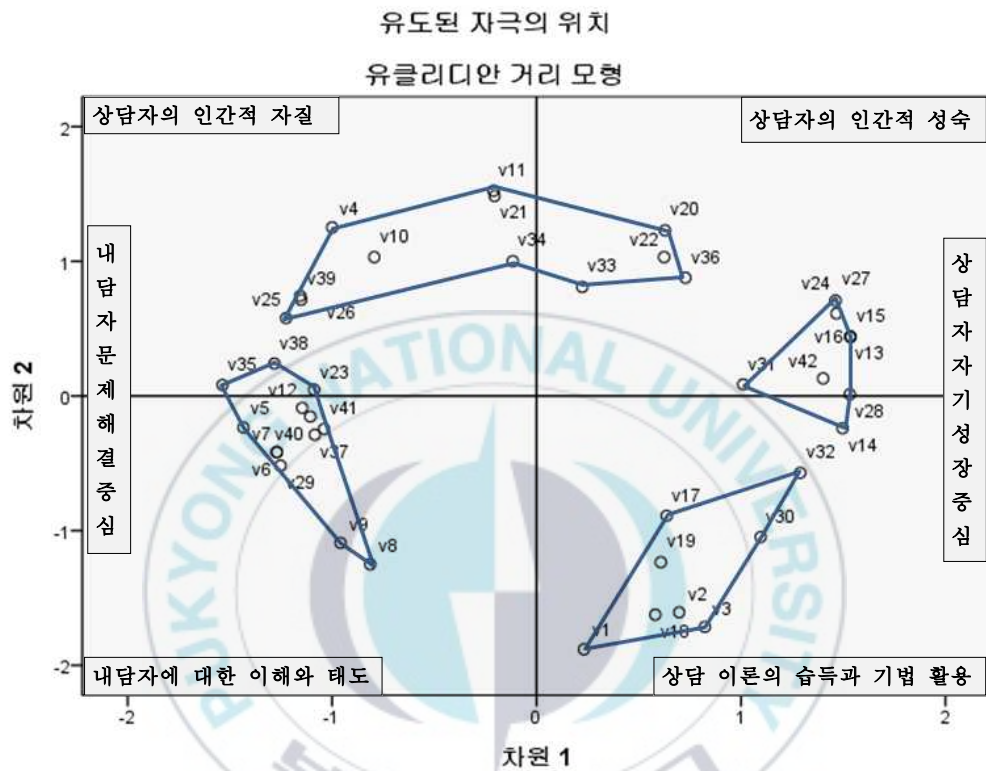


그림 2.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의미에 대한 초심상담자의 개념도

우선 2개의 차원을 살펴보면, 차원 1(X축)은 효과적이고 성과있는 상담 관계를 의미하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형성’으로, 왼쪽·오른쪽방향으로는 ‘내담자 문제 해결 중심’과 ‘상담자 자기 성장 중심’으로, 차원 2(Y축)는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측면인 ‘상담자 자질’로, 위·아래방향으로 ‘전문적 자질’과 ‘인간적 자질’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유능한 전문상담사 의미에 대한 초심상담자의 군집과 핵심문장은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유능한 전문상담사 의미에 대한 초심상담자의 군집과 핵심문장

군집 1: 상담이론의 습득과 기법 활용 (8문장, $M = 3.78$, $SD = .81$)				
문항	문장	M	SD	
1	상담이론에 대해 충분히 습득하고 이를 상담 장면에 활용한다.	4.38	.48	
17	상담자는 상담 장면에서의 역전이를 알아차리고 이를 통한 자기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4.25	.97	
18	상담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와 노력으로 새로운 이론, 상담기법 등을 익혀야 한다.	4.25	.66	
19	상담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의 축적으로 감수성과 통찰력이 있다.	4.13	.60	
2	상담자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동료 상담자와 공유한다(비밀 보장을 유지)	3.88	.60	
3	다른 상담자에게 상담을 조언을 해 줄 수 있다(비밀 보장을 유지)	3.75	.66	
32	상담자는 자신의 인간적, 기술적, 경험적 면을 모두 상담 장면에 활용할 수 있다.	3.75	.66	
30	상담경력이 쌓이는 것만으로 숙련자가 되고 유능해질 수 있다.	1.88	1.17	
군집 2: 상담관계에서 상담자 인간적 자질 (12문장, $M = 4.16$, $SD = 1.05$)				
문항	문장	M	SD	
25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버텨준다.	4.75	.43	
4	상담자로서 내담자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4.63	.48	
11	내담자의 삶을 온전하게 느끼고 이해하며 공감한다.	4.63	.48	
33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의 기준에서 내담자를 바라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한다.	4.63	.70	
10	내담자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한다.	4.50	.50	
20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을 모두 비우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로 내담자를 만난다.	4.38	.70	
34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좋은 모델링 대상이 된다.	4.38	.86	

39	유능한 상담사는 수용적인 언어로 내담자와 신뢰관계를 맺는다.	4.38	.48
21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와 평등한 존재라는 마음으로 내담자를 만나야 한다.	4.25	.66
22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를 변화시키고 도울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갖지 않는다.	4.25	.43
26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의 태도를 갖는다.	4.25	.97
36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실수를 보다는 유능한 모습, 경험 많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1.88	1.93

군집 3: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태도 (13문장, $M = 4.33$, $SD = .59$)

문항	문장	M	SD
12	유능한 상담사는 상담 장면에서의 역전이를 알아차리고 이를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4.75	.43
7	유능한 상담사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 내담자 스스로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63	.48
8	상담사례 구조화를 통해 내담자가 호소하는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운다.	4.63	.48
23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한계를 인정한다.	4.63	.70
5	상담 장면에서의 내담자의 저항을 치료적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4.50	.50
6	적절한 질문을 통해 내담자의 저항을 잘 다룰 수 있다.	4.50	.50
9	내담자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한다.	4.50	.50
29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긍정적인 자원을 찾아내고 이를 상담의 치료적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50	.50
35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표현으로도 내담자를 이해하고 알아준다.	4.50	.50
41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내담자 스스로 어려움을 적절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상담자이다.	4.50	.50
38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4.13	.78
40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끌어내 줄	4.00	.71

	수 있는 상담자이다.		
37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2.50	1.32

군집 4: 상담자의 인간적 성숙 (9문장, $M = 4.16$, $SD = .89$)

문항	문장	M	SD
13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4.75	.43
14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을 돌보는 힘이 있는 상담자이다.	4.75	.43
16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는 자기 수련을 한다.	4.75	.43
15	상담자는 끊임없이 자기분석을 통해 자신을 알아차리는 수련을 한다.	4.63	.70
42	상담자는 인간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야 한다.	4.63	.48
27	유능한 상담사는 상담을 통해 자기성장을 경험한다.	4.38	.86
28	상담자는 상담을 통한 지식과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할 수 있다.	4.00	.87
24	유능한 상담사는 일상생활과 상담 장면에서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한다.	3.38	.86
31	상담자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야만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2.13	1.27

주. 각 군집별 문항들은 중요도 순으로 제시되었음. 중요도가 동일할 경우에는 문항 번호 순으로 제시하였음.

군집 1(상담이론의 습득과 기법 활용)은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과 관련된 군집으로, 상담자의 이론과 기법, 경험 등을 나타내고 있다. 군집 2(상담관계에서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는 성과 있는 상담에서의 상담자 요인과 관련된 군집으로, 내담자에 대한 적절한 공감, 수용, 존중 등을 나타내고 있다. 군집 3(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태도)은 효과적인 상담관계와 관련된 군집으로, 내담자에 대한 비언어적 표현 이해, 저항다루기, 상담구조화 등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집 4(상담자의 인간적인 성숙)는 초심상담자의 자기관리와 관련된 군집으로, 자기분석, 자기 수련, 자기 성장 등을 나

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초심상담자들이 생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란 무엇인지에 대한 42개 핵심문장들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한 초심상담자들에게 설문지를 통해 각 핵심문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질문하였고, 참여자들은 각 문장들에 대해 0점(전혀 중요하지 않는다) ~ 5점(매우 중요하다)까지 평정하였다. 우선 각 군집들에 대한 중요도 평균을 살펴본 결과, 가장 중요하다고 평정한 군집은 ‘군집 3(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태도)’($M = 4.33$)이었으며, ‘군집 2(상담관계에서의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M = 4.16$), ‘군집 4(상담자의 인간적인 성숙)’($M = 4.16$), ‘군집 1(상담이론의 습득과 활용)’($M = 3.78$) 순으로 나타났다.

초심상담자가 생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의미에 대한 군집별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은 핵심문항들을 살펴보면, 우선 군집 1(상담이론의 습득과 기법 활용)의 경우, 1번(상담이론에 대해 충분히 습득하고 이를 상담 장면에서 활용한다), 17번(상담자는 상담 장면에서의 역전이를 알아차리고 이를 통한 자기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18번(상담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와 노력으로 새로운 이론, 상담기법 등을 익혀야 한다), 19번(상담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의 축적으로 감수성과 통찰력이 있다) 등으로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군집 2(상담관계에서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에서는 25번(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버텨준다), 4번(상담자로서 내담자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다), 11번(내담자의 삶을 온전하게 느끼고 이해하며 공감한다), 33번(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의 기준에서 내담자를 바라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한다) 등을 중요한 문항으로 평정하였으며, 이는 초심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활용되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상담자 요인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군집 3(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태도)의 경우, 12번(유능한 상담사는 상담 장면에서의 역전이를 알아차리고 이를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7번(유능한 상담사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 내담자 스스로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8번(상담사례 구조화를 통해 내담자가 호소하는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운다), 23번(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한계를 인정한다) 등으로 상담에서 상담자의 기법과 태도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집 4(상담자의 인간적 성숙)의 경우, 13번(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14번(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을 돌보는 힘이 있는 상담자이다), 16번(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는 자기 수련을 한다), 15번(상담자는 끊임없이 자기분석을 통해 자신을 알아차리는 수련을 한다), 42번(상담자는 인간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야 한다) 등으로 한 초심상담자의 인간적인 성숙을 위한 수련 내용과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초심상담자의 개념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심상담자의 군집 3(내담자의 이해와 태도)은 내담자 문제해결 차원과 전문적 자질 차원에 분포되어 있고, 군집 2(상담관계에서의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은 내담자 문제해결 차원과 상담자 자기성장 차원으로 넓게 분포되어 내담자와 상담자간의 상호 관계를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내담자와 상담자와의 관계성이 중요하며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가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과 상담자와 내담자의 성숙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초심상담자들이 평정한 군집별 중요도를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태도’(M=4.33)이었다. 이것은 내담자의 문제해

결에 있어 내담자의 저항과 역전이를 알아차리고 탐색할 수 있어야 유능한 전문상담사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다음은 ‘상담관계에서 인간적 자질’($M=4.16$), ‘상담자의 인간적 성숙’($M=4.16$)으로 상담자로서의 역할에서의 인간적 자질과 인간적 성숙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초심상담자로서 ‘상담이론의 습득과 기법 활용’($M=3.78$)은 상담이론의 습득과 활용은 다양한 상담경험을 통해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전문성을 가지게 된다고 봄으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평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의미에 대한 숙련상담자들의 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숙련상담자들의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의미에 대한 42개 핵심문장을 몇 개의 범주로 분류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최소 3개에서 최대 4개($M = 3.63$, $SD = .52$)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개념도 분석 절차의 첫 단계로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e; MDS)을 통해 살펴본 스트레스 값은 .206으로 개념도를 위한 MDS 분석에 적합한 스트레스 값의 평균 범위인 .205 ~ .365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ane & Trochim, 2007). 이를 통해 숙련된 상담자의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의미 자료가 개념도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핵심문장들이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차원척도법을 통해 산출한 2차원(x, y축) 좌표 값을 이용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핵심문장들을 4개 군집으로 분류하는 것이 차별적 특성과 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4개 군집을 숙련상담자들이 생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 의미에 대한 핵심문장 분류로 채택하였다. 숙련된 상담자들이 생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의미에 대한 핵심문장들의 군집을 2개 차원(X축, Y축)의 평면 좌표에 표시한 결과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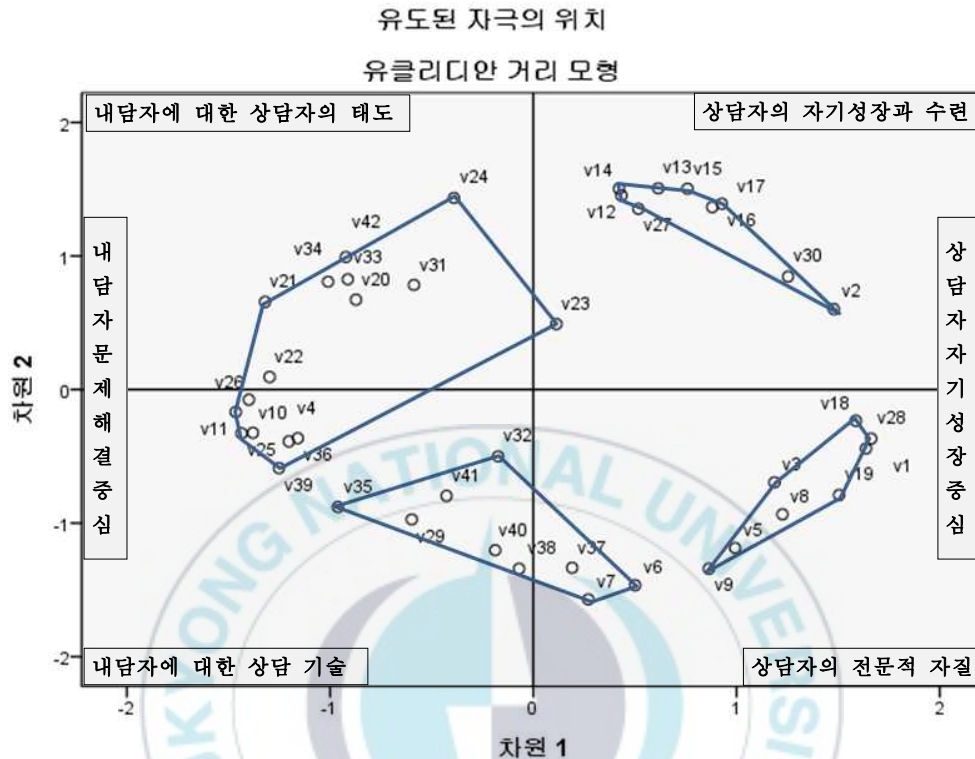


그림 3.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의미에 대한 숙련상담자의 개념도

우선 2개의 차원을 살펴보면, 차원 1(X축)은 효과적이고 성과있는 상담 관계를 의미하는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형성’으로, 왼쪽·오른쪽 방향으로 ‘내담자 문제 해결 중심’과 ‘상담자 자기 성장 중심’으로, 차원 2(Y축)는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측면인 ‘상담자의 자질’로, Y는 위쪽·아래쪽으로 ‘전문적 자질’과 ‘인간적 자질’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유능한 전문상담사 의미에 대한 숙련 상담자의 군집과 핵심문장은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유능한 전문상담사 의미에 대한 숙련상담자의 군집과 핵심문장

군집 1: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 (8문장, $M = 4.39$, $SD = .45$)

문항	문장	M	SD
5	상담 장면에서의 내담자의 저항을 치료적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4.88	.33
8	상담사례 구조화를 통해 내담자가 호소하는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운다.	4.75	.66
19	상담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의 축적으로 감수성과 통찰력이 있다.	4.50	.50
28	상담자는 상담을 통한 지식과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할 수 있다.	4.50	.50
1	상담이론에 대해 충분히 습득하고 이를 상담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	4.38	.70
9	내담자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한다.	4.38	.86
18	상담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와 노력으로 새로운 이론, 상담기법 등을 익혀야 한다.	4.38	.70
3	다른 상담자에게 상담을 조언을 해 줄 수 있다(비밀 보장을 유지)	3.38	.86

군집 2: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을 위한 성장과 수련 (9문장, $M = 4.32$, $SD = 1.03$)

문항	문장	M	SD
13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4.88	.33
15	상담자는 끊임없이 자기분석을 통해 자신을 알아차리는 수련을 한다.	4.88	.33
16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는 자기 수련을 한다.	4.88	.33
12	유능한 상담사는 상담 장면에서의 역전이를 알아차리고 이를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4.63	.48
14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을 돌보는 힘이 있는 상담자이다.	4.63	.48
2	상담자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동료 상담자와 공유한다(비밀 보장을 유지)	4.50	.50
17	상담자는 상담 장면에서의 역전이를 알아차리고 이를 통한 자기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4.50	.50

27	유능한 상담사는 상담을 통해 자기성장을 경험한다.	4.38	.48
30	상담경력이 쌓이는 것만으로 숙련자가 되고 유능해질 수 있다.	1.63	1.49

군집 3: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자의 태도 (16문장, $M = 4.12$, $SD = 1.20$)

문항	문장	M	SD
10	내담자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한다.	4.75	.43
20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을 모두 비우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로 내담자를 만난다.	4.75	.43
23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한계를 인정한다.	4.75	.43
25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주고 버텨준다.	4.75	.43
26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의 태도를 갖는다.	4.75	.43
11	내담자의 삶을 온전하게 느끼고 이해하며 공감한다.	4.63	.48
21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와 평등한 존재라는 마음으로 내담자를 만나야 한다.	4.63	.48
33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의 기준에서 내담자를 바라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한다.	4.63	.48
42	상담자는 인간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야 한다.	4.63	.48
22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를 변화시키고 도울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갖지 않는다.	4.50	.50
34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좋은 모델링 대상이 된다.	4.38	.48
24	유능한 상담사는 일상생활과 상담 장면에서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한다.	4.25	.43
4	상담자로서 내담자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4.13	.78
39	유능한 상담사는 수용적인 언어로 내담자와 신뢰관계를 맺는다.	4.13	.78
31	상담자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야만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63	1.32
36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실수보다 유능한 모습, 경험 많	1.63	1.48

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군집 4: 내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기술 (9문장, $M = 3.99$, $SD = .92$)

문항	문장	M	SD
29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긍정적인 자원을 찾아내고 이를 상담의 치료적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88	.33
6	적절한 질문을 통해 내담자의 저항을 잘 다룰 수 있다.	4.63	.48
7	유능한 상담사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 내담자 스스로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50	.50
41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내담자 스스로 어려움을 적절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상담자이다.	4.38	.48
35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표현으로도 내담자를 이해하고 알아준다.	4.25	.43
40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끌어내 줄 수 있는 상담자이다.	4.25	.43
32	상담자는 자신의 인간적, 기술적, 경험적 면을 모두 상담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	3.88	.78
38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3.25	1.09
37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1.88	1.17

주. 각 군집별 문항들은 중요도 순으로 제시되었음. 중요도가 동일할 경우에는 문항 번호 순으로 제시하였음.

군집 1(상담자의 전문적 자질)은 숙련상담자의 기술적 측면과 관련된 군집으로, 이론과 기법, 학습 등을 나타내고 있다. 군집 2(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을 위한 성장과 수련)는 숙련상담자의 자기관리와 관련된 군집으로, 자기분석, 자기 점검 및 수련 등을 나타내고 있다.

군집 3(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자의 태도)은 상담에서 상담자의 태도와 관련된 군집으로,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의 이해, 수용적 태도, 일치성, 등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집 4(내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기술)는 상담자가 가져야할 전문적 자질과 관련된 군집으로, 내담자의 저항 다루기, 장점 끌어내기, 내담자 탐색 등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숙련된 상담자들이 생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란 무엇인지에 대한 42개 핵심문장들의 중요도 평가를 각 문항들에 대한 중요도 평균으로 살펴본 결과, 가장 중요하다고 평정한 군집은 ‘군집1(상담자의 전문적인 자질)’($M = 4.39$)이었으며, ‘군집2(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을 위한 성장과 수련)’($M = 4.32$), ‘군집3(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자의 태도)’($M = 4.12$), ‘군집4(내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기술)’($M = 3.99$) 순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별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은 핵심문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군집 1(상담자의 전문적 자질)의 경우, 5번(상담 장면에서의 내담자의 저항을 치료적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8번(상담사례 구조화를 통해 내담자가 호소하는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운다), 19번(상담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의 축적으로 감수성과 통찰력이 있다), 28번(상담자는 상담을 통한 지식과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할 수 있다) 등으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로서 필요한 이론과 기법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군집 2(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을 위한 성장과 수련)는 13번(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15번(상담자는 끊임없이 자기분석을 통해 자신을 알아차리는 수련을 한다), 16번(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는 자기 수련을 한다), 12번(유능한 상담사는 상담 장면에서의 역전이를 알아차리고 이를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14번(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을 돌보는 힘이 있는 상담자이다) 등으로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을 위한 성장에 필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군집 3(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자의 태도)은 10번(내담자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한다), 20번(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을 모두 비우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로 내담자를 만난다), 23번(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한계를 인정한다), 25번(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버텨준다), 26번(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의 태도를 갖는다) 등으로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자가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집 4(내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기술)는 29번(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긍정적인 자원을 찾아내고 이를 상담의 치료적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6번(적절한 질문을 통해 내담자의 저항을 잘 다룰 수 있다), 7번(유능한 상담사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 내담자 스스로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1번(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내담자 스스로 어려움을 적절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상담자이다) 등으로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과 활용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숙련상담자들의 개념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4개의 군집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 ‘상담자의 자기 수련과 성장’,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자의 태도’, ‘내담자에 대한 상담 기술 활용’이었다.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자의 태도’와 ‘상담기술 활용’에 대한 군집은 내담자의 문제해결 차원에 각각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상담자의 전문적 상담기술’과 ‘자기수련과 성장’에 대한 군집은 상담자의 자기성장 차원에 독립적으로 배치되었다. 이는 숙련상담자로서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각각의 차원에서 보다 선명하고 분명함을 보여준다.

숙련상담자들이 평정한 각 군집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M=4.39)로 가장 높았다. 이것은 상담 경험에 따라 내담자의 호소문제에 대한 지엽적인 시각이 아닌 내담자의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는 상담자의 전문성을 유능한 상담자의 의미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상담자의 자기 수련과 성장'(M=4.32)으로 유능함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에 있어서 스스로 유능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기 성찰적 개념인 상위 유능감을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자의 태도'(M=4.12),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 상담기술'(M=3.99)로 상담자의 수용적이고 비판단적 태도로 내담자의 저항과 강점 활용, 통찰을 적절하게 치료적 요인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유능한 상담자의 의미로 중요하게 보고 있다.

3.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노력

상담자들이 생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를 위한 노력에 대한 핵심문장들은 41개로 최종 정리되었다. 초심상담자와 숙련된 상담자들에게 있어서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개념도 분석 절차를 통해 살펴보았다.

유능한 전문상담사로서의 노력에 대한 41개 핵심문장을 연구에 참여한 초심상담자들이 몇 개의 범주로 분류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최소 3개에서 최대 4개(M = 3.75, SD = .46)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우선 다차원척도법을 통해 살펴본 스트레스 값은 .189로 개념도를 위한 MDS 분석에 적합한 스트레스 값의 평균 범위인 .205 ~ .365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초심상담자가 생각한 유능한 상담자로서 필요한 노력에 대한 자료가 개념도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핵심문장들이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핵심문장들을 4개 군집으로 분류하는 것이 차별적 특성과 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4개 군집을 초심상담자들이 생각하는 상담자로서 전문성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한 핵심문장 분류로 채택하였다. 핵심문장들의 군집을 2개 차원(X축, Y축)의 평면 좌표에 표시한 결과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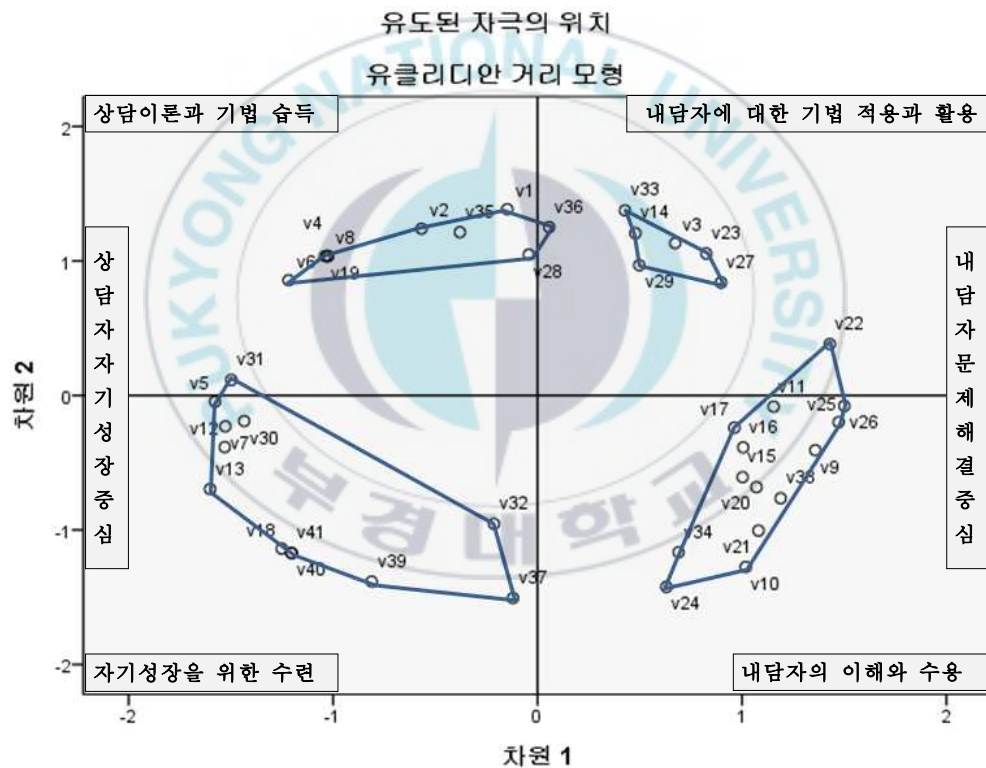


그림 4. 유능한 전문상담사를 위한 노력에 대한 초심상담자의 개념도

우선 2개의 차원을 살펴보면, 차원 1(X축)은 효과적이고 성과있는 상담

관계를 의미하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형성’으로, 왼쪽·오른쪽 방향으로 ‘상담자 자기 성장 중심’과 ‘내담자 문제 해결 중심’으로, 차원 2(Y축)는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측면인 ‘상담자 자질’로, Y는 위·아래 방향으로 ‘전문적 자질’과 ‘인간적 자질’로 명명하였다.

유능한 전문상담사 노력에 대한 초심상담자의 군집과 핵심문장은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유능한 전문상담사 노력에 대한 초심상담자의 군집과 핵심문장

군집 1: 상담이론과 기술의 습득 (9문장, $M = 3.82$, $SD = 1.19$)				
문항	문장	M	SD	
6	상담자는 자신의 상담에 대한 슈퍼비전을 꾸준히 받는다.	4.75	.66	
19	상담자는 사례개념화를 통해 내담자의 핵심문제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4.63	.48	
28	상담자는 내담자의 근기(자아강도)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개입을 하는 능력을 기른다.	4.50	.50	
35	내담자의 이야기에만 따라가는 상담보다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4.38	.70	
2	상담자는 다양한 상담이론과 기법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이론과 기법을 찾는다(비밀보장을 유지)	4.25	.66	
1	상담자는 상담 장면에서 적용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을 받으며 지식을 가진다(비밀보장을 유지)	4.00	.71	
8	상담자는 다양한 심리검사 실시와 집단상담의 참여를 통해 유능한 상담사로 성장한다.	4.00	.71	
4	효과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 상담경험(케이스)을 늘리고자 노력한다.	2.88	1.05	
36	상담자의 성공적인 상담기법을 내담자에 상관없이 주로 적용한다.	1.00	.71	
군집 2: 내담자에 대한 기법 적용과 활용 (6문장, $M = 4.13$, $SD = .33$)				
문항	문장	M	SD	
29	내담자의 연령이나 수준에 맞는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	4.63	.48	

	다.		
27	내담자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효과적인 치료계획을 세운다.	4.38	.48
33	내담자의 호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 정서에 맞는 상담 방법을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4.13	.78
14	다양한 상담경험을 바탕으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내담자에게 맞는 접근법을 찾는다.	4.00	.87
3	상담자는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이론과 기법이 아니더라도, 내담자의 특성에 맞는 이론과 기법을 적용한다.	3.88	.78
23	내담자와 상담 시, 다양한 상담기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다.	3.75	.97

군집 3: 상담자의 자기 성장을 위한 수련 (12문장, $M = 4.51$, $SD = .31$)

문항	문장	M	SD
7	내담자에 대한 역전이를 알아차리기 위한 자기점검이 필요하다.	4.75	.66
18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이 내담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정한다.	4.75	.43
32	상담자는 일치된 생각과 표현으로 내담자와 소통할 수 있다(진솔성)	4.75	.43
40	상담자로서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솔직히 인정한다.	4.75	.43
5	상담자 자기 이해를 위한 교육 분석을 꾸준히 받는다.	4.63	.99
30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의 감정과 역동을 알아차리기 위해 항상 자기 자각과 자기 점검을 한다.	4.63	.70
13	내담자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끼기 위해 상담자 스스로 '나를 비우려는' 노력을 한다.	4.50	.71
31	상담자의 끊임없는 자기 수련하게 되면 내담자와의 신뢰감을 형성에 도움이 된다.	4.50	.71
41	상담자로서 인간을 같은 존재로 바라보는 인간애와 상담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4.50	.50
12	상담자는 자신을 지각하고 자기 수련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4.38	.70
39	판단하지 않고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상담자가 되기 위해 상담자의 틀(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4.38	.70
37	상담자는 전문적 상담 기술보다, 내담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3.63	.48

다.

군집 4: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 (14문장, $M = 4.41$, $SD = .26$)

문항	문장	M	SD
11	내담자의 언어를 왜곡하지 않고 적절한 공감적 질문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도록 한다.	4.75	.43
15	내담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호소문제와 감정에 집중하고,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4.63	.70
16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 상담자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수용한다.	4.63	.70
22	내담자가 가진 강점을 찾아 상담 장면에서 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63	.48
24	내담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수용 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4.63	.48
9	내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수용적인 언어로 내담자를 대한다.	4.50	.50
17	유능한 상담사는 상담 전, 상담에 대한 구조화 작업을 통해 내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4.50	.50
21	내담자의 비언어적 표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면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다.	4.50	.50
26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지금-여기에서의 상태를 지각하고 머무르게 돕는다.	4.50	.50
10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공감을 한다.	4.25	.66
25	내담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자신의 감정을 찾아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을 이끌어간다.	4.13	1.27
38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입보다는 내담자의 문제에 함께 머물러준다.	4.13	.78
20	내담자의 사소한 감정에도 머무를 수 있는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훈련을 한다.	4.00	.71
34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하고 이끌어가는 상담을 하지 않는다.	4.00	1.00

주. 각 군집별 문항들은 중요도 순으로 제시되었음. 중요도가 동일할 경우에는 문항 번호 순으로 제시하였음.

군집 1(상담이론과 기술을 충분하게 습득)은 상담자의 상담 기법 요인과 관련된 군집으로, 초심상담자로서 상담 이론과 지식 습득, 사례개념화, 상담경험 등을 나타내고 있다. 군집 2(내담자에 대한 적절한 기법 적용과 활용)는 상담관계에서 효과적인 상담 활동과 관련된 군집으로, 내담자의 특성, 연령이나 수준에 맞는 개입, 문화적 이해 등을 나타내고 있다. 군집 3(상담자의 자기 성장을 위한 수련)은 상담자의 자기관리에 관련된 군집으로, 상담자로서 한계 인정, 교육분석, 자기 수련 등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집 4(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는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과 관련된 군집으로, 수용과 공감, 신뢰, 비언어표현, 알아차리기 등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초심상담자들이 생각하는 상담자의 전문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41개 핵심문장들의 중요도 평가를 각 문항들에 대한 중요도 평균으로 살펴본 결과, 가장 중요하다고 평정한 군집은 ‘군집 3(상담자의 자기 성장을 위한 수련)’($M = 4.51$)이었으며, ‘군집4(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M = 4.41$), ‘군집2(내담자에 대한 기법 적용과 활용)’($M = 4.13$), ‘군집1(상담이론과 기술의 습득)’($M = 3.82$) 순으로 나타났다.

초심상담자가 생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가 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군집별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은 핵심문항들을 살펴보면, 우선 군집 1(상담이론과 기술의 습득)의 경우, 6번(상담자는 자신의 상담에 대한 슈퍼비전을 꾸준히 받는다), 19번(상담자는 사례개념화를 통해 내담자의 핵심문제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28번(상담자는 내담자의 근기(자아강도)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개입을 하는 능력을 기른다), 35번(내담자의 이야기에만 따라가는 상담보다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등으로 상담 성과를 위한 상담자의 이론과 기법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군집 2(내담자에 대한 기법 적용과 활용)에서는 29번(내담자의 연령이나 수준에 맞는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7번(내담자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효과적인 치료계획을 세운다), 33번(내담자의 호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 정서에 맞는 상담 방법을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한다), 14번(다양한 상담경험을 바탕으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내담자에게 맞는 접근법을 찾는다) 등을 중요한 문항으로 평정하였으며, 이는 초심상담자로서 전문성을 갖기 위해 내담자를 위한 적절한 기법 적용과 활용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군집 3(상담자의 자기 성장을 위한 수련)에서는 7번(내담자에 대한 역전이를 알아차리기 위한 자기점검이 필요하다), 18번(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이 내담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정한다), 32번(상담자는 일치된 생각과 표현으로 내담자와 소통할 수 있다), 40번(상담자로서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솔직히 인정한다) 등을 중요한 문항으로 평정하였으며, 이는 초심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을 위한 점검과 수련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집 4(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에서는 11번(내담자의 언어를 왜곡하지 않고 적절한 공감적 질문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도록 한다), 15번(내담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호소문제와 감정에 집중하고,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16번(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 상담자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수용한다), 22번(내담자가 가진 강점을 찾아 상담 장면에서 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4번(내담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수용 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등을 중요한 문항으로 평정하였으며, 이는 초심상담자로서 내담자를 위한 수용적인 이해와 공감적 태도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초심상담자의 개념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유능한 전문 상담자에 대한 노력의 영역들이 차원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X축의 왼쪽으로 상담자의 자기성장 차원으로 범주 1(상담자 상담이론과 기술 습득)과 범주 3(상담자의 자기점검)이 가깝게 위치하고, X축의 오른쪽인 내담자의 문제해결 차원으로 범주 2(내담자에게 적절한 상담기법과 활용)과 범주 4(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로 나타나고 있다. 중요도 평정을 살펴보면, 초심상담자들은 ‘상담자의 자기점검과 수련’($M=4.51$)을 가장 중요한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노력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초심상담자가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의미에서 ‘내담자 대한 이해와 태도’를 중요한 범주로 본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과 있는 상담을 위해서 치료적 도구인 상담자 요인이 중요함과 더불어 내담자 이해를 위한 자기점검과 수련을 유능한 상담자로 성장하는 발달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평정한 것은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M=4.41$)과 ‘내담자에게 적절한 상담기법과 활용’($M=4.13$)으로 초심상담자들이 상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내담자에 따라 적절한 상담기법에 대해 불확실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평정한 것은 ‘상담이론과 기술 습득’($M=3.82$)으로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노력으로 다른 범주보다 덜 중요하게 평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중요도 평정을 종합해보면 초심상담자들이 인식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는 전문적 자질보다는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인간적 자질에 더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숙련상담자들의 유능한 전문상담사가 되기 위한 노력에 대한 41개 핵심문장을 연구에서 몇 개의 범주로 분류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최소 3개에서 최대 4개($M = 3.75$, $SD = .46$)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우선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e; MDS)을 통해 살펴본 스트레

스 값은 .211로 개념도를 위한 MDS 분석에 적합한 스트레스 값의 평균 범위인 .205 ~ .365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숙련된 상담자들이 생각한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한 자료가 개념도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핵심문장들이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4개 군집으로 분류하는 것이 차별적 특성과 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4개 군집을 숙련된 상담자들이 생각하는 유능한 상담사로서 필요한 노력에 대한 핵심문장 군집으로 채택하였다. 핵심문장들의 4개 군집을 2개 차원(X축, Y축)의 평면 좌표에 표시한 결과는 그림 5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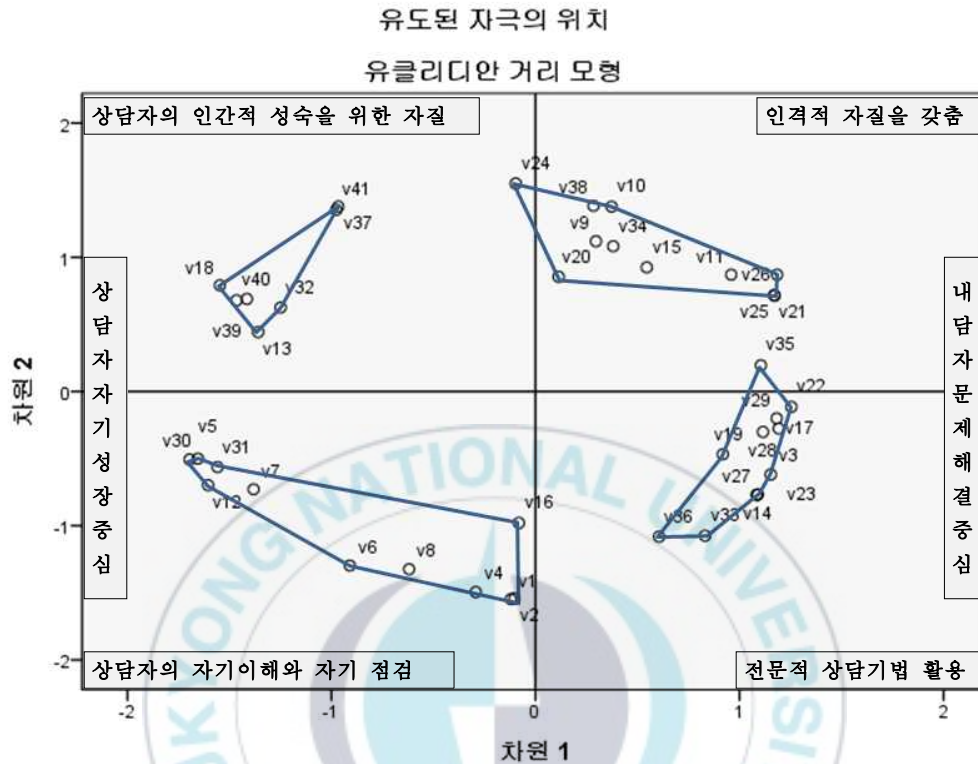


그림 5. 유능한 전문 상담사의 노력에 대한 숙련상담자의 개념도

우선 2개의 차원을 살펴보면, 차원 1(X축)은 효과적이고 성과있는 상담 관계를 의미하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형성’으로, 왼쪽·오른쪽 방향으로 ‘상담자 자기 성장 중심’과 ‘내담자 문제해결 중심’으로, 차원 2(Y축)는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측면인 ‘상담자의 자질’로, Y는 위·아래방향으로 ‘인간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숙련상담자들의 각 군집들을 표 7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유능한 전문상담사 노력에 대한 숙련상담자의 군집과 핵심문장

군집 1: 상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이해와 점검 11문장, $M = 4.41$, $SD = .58$)

문항	문장	M	SD
30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의 감정과 역동을 알아차리기 위해 항상 자기 자각과 자기 점검을 한다.	4.88	.33
1	상담자는 상담 장면에서 적용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을 받으며 지식을 가진다.	4.75	.43
5	상담자 자기 이해를 위한 교육 분석을 꾸준히 받는다.	4.75	.43
6	상담자는 자신의 상담에 대한 슈퍼비전을 꾸준히 받는다.	4.75	.43
7	내담자에 대한 역전을 알아차리기 위한 자기점검이 필요하다.	4.75	.43
16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 상담자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수용한다.	4.75	.43
2	상담자는 다양한 상담이론과 기법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이론과 기법을 찾는다.	4.50	.50
12	상담자는 자신을 지각하고 자기 수련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4.25	.83
8	상담자는 다양한 심리검사 실시와 집단상담의 참여를 통해 유능한 상담사로 성장한다.	4.13	1.05
31	상담자의 끊임없는 자기 수련하게 되면 내담자와의 신뢰감을 형성에 도움이 된다.	4.13	.93
4	효과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 상담경험(케이스)을 늘리고자 노력한다.	2.88	1.36

군집 2: 내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상담 기법을 활용 (12문장, $M = 3.96$, $SD = 1.04$)

문항	문장	M	SD
19	상담자는 사례개념화를 통해 내담자의 핵심문제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4.63	.70
22	내담자가 가진 강점을 찾아 상담 장면에서 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50	.50
28	상담자는 내담자의 근기(자아강도)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개입을 하는 능력을 기른다.	4.50	.50
35	내담자의 이야기에만 따라가는 상담보다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4.50	.50
14	다양한 상담경험을 바탕으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내담자에게 맞는 접근법을 찾는다.	4.25	.66
27	내담자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효과적인 치료계획을 세운다.	4.25	.83

29	내담자의 연령이나 수준에 맞는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25	.66
33	내담자의 호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 정서에 맞는 상담 방법을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4.25	.66
3	상담자는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이론과 기법이 아니더라도, 내담자의 특성에 맞는 이론과 기법을 적용한다.	3.88	.93
17	유능한 상담사는 상담 전, 상담에 대한 구조화 작업을 통해 내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3.88	1.17
23	내담자와 상담 시, 다양한 상담기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다.	3.88	.78
36	상담자의 성공적인 상담기법을 내담자에 상관없이 주로 적용한다.	.75	1.30

군집 3: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인간적 자질 (11문장, $M = 4.14$, $SD = .53$)

문항	문장	M	SD
24	내담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수용 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4.63	.48
11	내담자의 언어를 왜곡하지 않고 적절한 공감적 질문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도록 한다.	4.38	.48
15	내담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호소문제와 감정에 집중하고,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4.38	.48
20	내담자의 사소한 감정에도 머무를 수 있는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훈련을 한다.	4.38	.70
21	내담자의 비언어적 표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면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다.	4.38	.48
25	내담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자신의 감정을 찾아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을 이끌어간다.	4.38	.99
26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지금-여기에서의 상태를 지각하고 머무르게 돕는다.	4.38	.70
10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공감을 한다.	4.25	.66
9	내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수용적인 언어로 내담자를 대한다.	4.00	.87
34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하고 이끌어가는 상담을 하지 않는다.	3.63	1.11
38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입보다는 내담자의 문제에 함께 머물러준다.	2.75	1.20

군집 4: 상담자의 인간적 성숙을 위한 자질 (7문장, $M = 4.23$, $SD = .57$)

문항	문장	<i>M</i>	<i>SD</i>
41	상담자로서 인간을 같은 존재로 바라보는 인간애와 상담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4.63	.48
13	내담자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끼기 위해 상담자 스스로 '나를 비우려는' 노력을 한다.	4.50	.71
18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이 내담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정한다.	4.50	.71
40	상담자로서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솔직히 인정한다.	4.50	.50
32	상담자는 일치된 생각과 표현으로 내담자와 소통할 수 있다(진솔성)	4.38	.48
39	판단하지 않고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상담자가 되기 위해 상담자의 틀(고정관념)을 깨야한다.	4.13	.78
37	상담자는 전문적 상담 기술보다, 내담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3.00	1.80

주. 각 군집별 문항들은 중요도 순으로 제시되었음. 중요도가 동일할 경우에는 문항 번호 순으로 제시하였음.

군집 1(상담자의 전문성을 위한 자기 이해와 점검)은 상담자의 자기 관리와 관련된 군집으로, 교육 분석, 자기 점검, 이론과 지식, 기법 등을 나타내고 있다. 군집 2(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상담 기법)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군집으로, 상담자로서 내담자 이해, 구조화, 적절한 치료 개입 등을 나타내고 있다. 군집 3(내담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인간적 자질)은 성과있는 상담관계를 위한 인간적 자질과 관련된 군집으로,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공감, 충분한 이해와 표현하기 등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집 4(상담자의 인간적 성숙을 위한 자질)는 상담자의 인간적 성숙을 위한 자기 관리와 관련된 군집으로, 숙련 상담자는 솔직성, 일치성, 인간애 등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숙련상담자들이 생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가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41개 핵심문장들의 중요도 평가를 각 문항들에 대한 중요도 평균으로 살펴본 결과, 가장 중요하다고 평정한 군집은

‘군집1(상담자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자기 이해와 점검)’($M = 4.41$)이었으며, ‘군집4(상담자의 인간적 성숙을 위한 자질)’($M = 4.23$), ‘군집3(내담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인격적 자질)’($M = 4.14$), ‘군집2(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상담 기법을 활용)’($M = 3.96$) 순으로 나타났다.

숙련된 상담자가 생각하는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한 군집별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은 핵심문항들을 살펴보면, 우선 군집 1(상담자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자기 이해와 점검)의 경우, 30번(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의 감정과 역동을 알아차리기 위해 항상 자기 자각과 자기 점검을 한다), 1번(상담자는 상담 장면에서 적용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을 받으며 지식을 가진다), 5번(상담자 자기 이해를 위한 교육 분석을 꾸준히 받는다), 6번(상담자는 자신의 상담에 대한 슈퍼비전을 꾸준히 받는다) 등으로 유능한 전문상담사가 되기 위한 전문적 자질을 갖기 위한 끊임없는 수련과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군집 2(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상담 기법을 활용)에서는 19번(상담자는 사례개념화를 통해 내담자의 핵심문제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22번(내담자가 가진 강점을 찾아 상담 장면에서 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8번(상담자는 내담자의 근기(자아강도)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개입을 하는 능력을 기른다), 35번(내담자의 이야기에만 따라가는 상담보다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등을 중요한 문항으로 평정하였으며, 이는 상담자가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적절한 기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군집 3(내담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인간적 자질)에서는 24번(내담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수용 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11번(내담자의 언어를 왜곡하지 않고 적절한 공감적 질문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도록 한다), 15번(내담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호소문제와 감정에 집중하고,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20번(내담자의 사소한 감정에도 머무를 수 있는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훈련을 한다) 등을 중요한 문항으로 평정하였으며, 이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집 4(상담자의 인간적 성숙을 위한 자질)에서는 41번(상담자로서 인간을 같은 존재로 바라보는 인간애와 상담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13번(내담자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끼기 위해 상담자 스스로 ‘나를 비우려는’ 노력을 한다), 18번(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이 내담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정한다), 40번(상담자로서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솔직히 인정한다) 등을 중요한 문항으로 평정하였으며, 이는 상담자의 성숙한 인간적 자질을 위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숙련상담자들의 개념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심상담자들의 경우와 다르게 거리상으로는 묶이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개의 군집들이 X축의 왼쪽(상담자의 자기성장)과 오른쪽(내담자 문제해결), Y축의 위쪽(인간적 자질)과 아래쪽(전문적 자질)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숙련상담자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기준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중요도 평정을 보면, X축의 왼쪽(상담자 자기성장)에 ‘상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점검’(M=4.41)을 가장 중요하게 평정하였고 그 뒤로는 ‘상담자의 인간적 성숙’(M=4.23)을 중요한 것으로 평정하였다. 반면에 이 두 영역과 떨어진 점수 차이로 X축의 오른쪽(내담자 문제 해결)에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인간적 자질’(M=4.14), ‘내담자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 상담 기법 활용’(M=3.96)으로 평정하였다. 이는 숙련상담자들 인식하는 유능한 상담자가 되기 위한 노력으

로 상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점검과 더불어 인간적 성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인식을 초심상담자와 숙련 상담자의 관점에서 탐색하여 그 내용을 밝히고, 차원과 범주로 구조화하며, 중요도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에 개념도 연구 방법에 따른 결론으로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의미와 노력을 나누어 살펴보고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심상담자 8명과 숙련상담자 8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개념도 방법의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개념도 방법은 ‘개념도 준비’, ‘아이디어 산출’, ‘진술문 구조화 및 중요도 평정’, ‘개념도 분석’, ‘개념도 해석’이라는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개념도를 위한 준비 단계에서는 인터뷰에 활용할 반 구조화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유능한 전문상담자의 의미와 노력의 차원으로 각각의 질문지에 반영하여 각 측면에 해당하는 초점질문을 개발하였다. 반 구조화된 질문지가 만들어짐에 따라 아이디어 산출 단계를 시작하였다. 각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는 약 50~90분간 진행되었고, 녹음 자료를 축어록으로 전사하여 전문가와 함께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종합 및 편집을 거쳐 최초 진술문 220개에서 최종 진술문 83개를 도출하였다.

진술문 구조화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 진술문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 Likert 5점 척도로 중요도를 평정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개념도 분석 단계에서 Excel 와 SPSS 22.0을 활용하여 2차원과 4개 범주의 개념도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로는 상담자가 지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의미에서는 42개의 최종 진술문이 도출되었고,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의 개념도는 2

개의 차원에서 4개의 범주로 각각 분류 되었다. 두 개의 차원을 살펴보면, 차원1(X축)은 효과적이고 성과 있는 상담관계를 의미하는 ‘상담자 자기성장 중심’과 내담자 문제해결 중심’ 차원으로, 차원 2(Y축)는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측면인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과 인간적 자질’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별로 살펴보면, 초심상담자들은 총 4개의 군집으로, 각 군집은 ‘상담이론 습득과 기법 활용’, ‘상담관계에서 인간적 자질’, ‘내담자 문제해결에 대한 이해와 태도’, ‘상담자의 인간적 성숙’이었다. 숙련상담자들도 4개의 군집으로, 각 군집은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을 위한 성장과 수련’, ‘내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자의 태도’, ‘내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기술’ 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각각 42개의 의미 진술문과 41개의 노력 진술문에 대해 유능한 전문 상담사에 대한 중요도를 5점 척도로 (0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5점; 매우 중요하다)로 평정하였다.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의미에서는 초심상담자(M=4.16), 숙련상담자(M=4.20)이다. 전체 평균 평정치는 4.18로 모든 범주가 보통 이상의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군집별 중요도를 보면,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초심자의 경우는 군집3인 ‘내담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태도’를 가장 중요하다고 평정하였고, 무엇보다도 유능한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상담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숙련상담자의 경우에는 군집1인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정하였으며, 숙련상담자는 상담을 위한 지식, 기법, 전문성이 충분하게 준비 되어있어야 함을 전제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노력 차원에 대한 진술문 목록을 구성하고, 구성된 41개의 진술문 목록에서 내재된 차원과 범주를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로 나누어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의 개념도는 앞

서 본 유능한 상담사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2개의 차원에서 4개의 범주로 각각 분류 되었다.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노력에서는 각각 차원1(X축)은 상담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내담자 문제해결 중심’과 ‘상담자 자기 성장 중심’으로, 차원2(Y)축은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측면에서 ‘인간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로 명명되었다.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노력에 대한 초심상담자의 개념도는 총 4개의 군집으로 이루어졌다. 각 군집별로 살펴보면, ‘상담이론과 기술 습득’, ‘내담자에 대한 적절한 기법 적용과 활용’, ‘상담자의 자기점검과 수련’,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었다.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노력에 대한 숙련상담자의 개념도에서도 모두 4개의 범주로 이루어졌다. 각 군집별로 살펴보면, ‘상담자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자기점검’, ‘내담자를 위한 전문적 상담기법 활용’, ‘내담자 문제해결을 위한 인간적 자질’, ‘상담자로서 인간적 성숙’이었다.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노력에서는 초심자($M=4.21$), 숙련상담자($M=4.18$)이다. 전체 평균 평정치는 4.18로 모든 범주가 보통 이상의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군집별 평정도를 살펴보면, 초심상담자의 경우에는 군집3인 ‘상담자의 자기 성장을 위한 수련’을 중요하다고 평정하였다. 전문적인 상담자 발달과 성장을 위해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며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숙련상담자의 경우에는 군집1인 ‘상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 이해와 학습’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정하였다. 숙련상담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상담자 자신을 이해하고 적절한 기법 활용과 더불어 상담자의 인간적 성숙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주요 연구 결과를 통해 차원명과 군집명, 진술문과 군집의 중요도 순서 등에서 나온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가 인식하는 유능한 상담자의 의미와 노력에서 공통적으로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어지는데 효과적이고 성과있는 상담의 관계측면에서의 ‘상담자의 자기성장 중심 - 내담자 문제 해결 중심’과 전문성 발달측면에서의 ‘전문적 자질 - 인간적 자질’이었다. 유능한 상담자의 의미와 노력에 대한 차원들은 상담자가 상담 그 자체로 치료적 도구(Fulton, 2016)라는 선행 연구와 상담자가 내담자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도구(백미현, 유현실, 2012)로 효과적인 상담과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기본적인 주제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능한 상담자의 의미를 초심상담자들은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하였다. 상담의 중요한 요인인 상담자, 내담자, 상담관계에 있어서 초심상담자는 내담자의 호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자신이 없고 따라서 내담자의 이해를 위한 태도나 개입에 대해 민감한 특성을 보였다. 이는 초심상담자들의 만연한 불안(pervasive anxiety)을 반영하는 것으로 초심상담자들은 상담이 지지부진할 때나 내담자에게 변화가 없다고 느낄 때 많이 어려워하고 자신의 상담관련 지식이나 경험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자신감과 관련된 문제는 상담경험이 쌓일수록 전문성 발달 과정에서 점차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숙련상담자들은 내담자에 따라 ‘상담 기술의 적절한 활용’을 유능한 상담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상담자로서 시간과 경험이 지날수록 내담자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만, 여전히 효과적이고 성과 있는 상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에서 있어서, 내담자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Skovholt & Ronnestad, 1992), 초심상담자들은 특히 내담자들이 보이는 세부적인 언어반응이나 행동반응,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 태도 등으로 인해 당황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에 대해 막막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숙련상담자들은 그런 부분적인 어려움보다는 경계선 성격장애나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있는 내담자들을 경험하는 어려움, 내담자의 표면적 증상을 넘어서서 한 개인의 성격, 환경, 주관적인 경험 등을 포괄하는 전인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초심상담자들이 비교적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는 내담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숙련상담자들은 상대적으로 만성적이고 힘든 내담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상담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내담자가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내담자 전체를 이해하고 성과를 내야한다는 부담도 느끼게 된다.

초심상담자들은 내담자와의 상호작용, 또는 내담자와의 상담의 만족감과 같은 요인에 중요도를 갖는 것은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실질적인 경험이 많지 않아서 내담자와 관련된 인지적인 요인들에 더 의미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내담자와의 경험으로 초심상담자는 자기 가치인 정체성과 자기 개념인 유능감이 숙련상담자로 성장하게 되는 내적 동기가 되고(Vallerand & Reid, 1984), 상담의 기술과 기법과 같은 인지적인 요인들보다 스스로 느껴지는 내적이고 정서적인 요인들로 인해 유능한 상담자로 성장하게 된다(Skovholt & Jennings, 2000)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 모두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의미를 ‘상담자로서의 인간적 성숙’과 ‘내담자를 위한 인간적 자질’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상담자의 발달에 있어서 개별화되고 내재화되는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에 대한 선행 연구(Skovholt & Ronnestad, 1992)와도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노력에 대한 초심상담자들과 숙련상담자들의 인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 할 수 있다. 우선,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노력에 대한 초심상담자들의 군집인 ‘상담자의 자기점검과 수련’은 숙련상담자들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자기 점검’ 군집과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초심상담자들의 군집 내 핵심문장을 살펴보면 내담자를 위한 상담자의 자기 점검으로 역전이를 알아차리고 한계를 인정하며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상담관계에 있어서 상담자의 자기 점검이기보다 내담자 이해를 위한 상담자의 자기점검이라고 할 수 있다(이은진, 이문희, 2015).

이에 반해 숙련상담자들의 경우는 상담자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점검과 수련으로 교육 분석과 슈퍼비전을 끊임없이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는 유능한 전문상담가로서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위 유능감을 유지해야한다는 연구와 일치한다(Goodyear, 2014). 더불어 초심상담자에서 숙련상담자로 성장할수록 내담자의 내적 세계에 맞추어진 상담에서 내담자와의 참 만남과 성장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Rønnestad와 Skovholt(2003)의 연구에서도 상담자의 발달 단계가 진행될수록 인지적인 초점이 바뀌면서 초심상담자는 외적인 경험을, 숙련상담자들은 내적인 경험을 신뢰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적인 연구로 전인적인 상담자 발달은 ‘전문가적 자기 발달’과 ‘개인적인 자기 발달’이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갖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Skovholt & Jennings, 2000).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노력에 있어서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 모두 상담자의 자기 수련을 강조하고 있음은 상담자로서 스스로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사의 전문성 발달은 멈춤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으로 상담사의 숙련과 전문성 발달

에서 성찰이 필수적이며 초기에는 확실성을 추구하지만 숙련도가 올라갈수록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다고 한다. 전문적인 삶의 단계가 개인적 삶의 단계와 유사하며 전문성 발달을 도모하기에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에 집중하고 파악하는 등 내담자의 다양한 측면을 지각하는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김진숙, 2006).

마지막으로,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의미와 노력에서 살펴본 군집들의 최종 진술문들은 상담에 효과적인 상담에 영향을 준 상담자 요인들 문항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김창대 외, 2009), 상담에 도움 된 경험에 영향을 준 상담자 요인들 문항으로 분포되어 있다(강현주, 장성숙, 2006).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상담자의 기법, 태도, 관계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와 상담자가 지각하는 경험적 연구에서도 상담에 대한 기법, 태도, 관계에 대한 군집들과 일치되게 진술됨을 확인해 보았다. 상담자 발달요인과 관련요인(상담자 요인,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상담자 교육)과의 상관관계에서 살펴본 연구에서도 상담자요인이 가장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담자가 도구인 상담에서 상담자 개인적 요인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Duncan & Reese, 2016)함으로써 상담자에 대한 이론적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경험적 인식으로 인한 연구가 일치함을 보여 주고 있다.

군집의 크기에서 살펴보면,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의미에서 초심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태도’와 숙련상담자의 ‘전문적인 상담 기술’은 다른 군집 크기에 비해 면적이 작아 뚜렷하게 개념화하며 인식하고 있음은 알 수 있었다. 이는 초심상담자는 역전이를 자각할 수 있어야 하며, 숙련상담자는 역전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상담자 교육이 단계별, 수준별 교육에 관심을 가져서 유능하고 성숙한 상담자를 성장·발달시키기 위해 전반적인 체계를 만들어야한다는 연구(임고

은, 김지현, 2008)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더불어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노력에서도 초심상담자의 ‘자기점검과 수련’과 숙련상담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 점검’ 모두 공통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군집에 비해 비교적 면적이 넓게 위치하고 있어서 중요함과 더불어 상담자들의 자기 수련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는 이은진, 이문희 (2015)의 연구와 김준혜, 안은희 (2013)의 연구에서 상담자의 자기 문제 이해와 마음챙김이 상담자의 발달에 있어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유능한 전문상담사는 자기 문제를 이해하는 자기 자각과 성찰을 하며 내담자의 문제를 상담자 스스로와 분리하여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인간적 성숙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담장면에서 활동하는 개인 상담자들의 시각으로 본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인식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의 시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개념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좀 더 객관적이고 현장중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발견지향적인 질적 연구방법론은 설명능력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개념도 방법론을 사용하였으나, 질적 연구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일반화의 어려움 역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이다. 물론 개념도 방법 역시 양적 분석 방법이 적용되고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으나, 결과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려면 동일 주제의 양적 연구를 통해 재확인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겠다. 또한 연구 참여

자가 총 16명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표본수를 대상으로 하였고, 무선 표집으로 대상을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문화적 차이, 상담 접근법, 소속 기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선발과정을 거쳐 더 많은 대상의 연구 참여자를 선발함으로써 한계점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기반이 된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인식에 대한 83개의 진술문은 초심상담자 8인과 숙련상담자 8인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아이디어를 최대한 수집하였으나 초심자와 숙련자의 진술문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구조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초심상담자와 숙련 상담자의 진술문을 각각 분리하여 구조화 작업을 실시한다면 다른 차원으로 나누어지고, 차이점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교 연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상담자가 지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지 도식을 확인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상담자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무엇보다 전문상담사의 전문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요인으로서 상담자 요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특수한 문제를 가진 내담자나 초보상담자, 대가 상담자 1인을 대상으로 상담자 요인을 추출하거나 상담자의 일부 특성을 가지고 상담자의 전문성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들을 경험적으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연구는 없었다. 상담자가 지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경험적 인지 도식을 확인함으로써 전문상담사로서 전문성과 유능성을 갖추고 효과적인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상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경험적인 이해를 돕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개념도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연구자의 시각과 기존 이론의 개입을 줄였다. 본연구의 목적이 개인 상담자들의 인식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의 임의적 분류나 기존 이론을 통한 분류가 아닌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절차 전반에 걸쳐 연구 참여자들의 시각을 반영하고 상담자들의 경험에 근거한 유능한 전문상담사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선행 연구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는 향후 효과적인 상담성과를 위한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념도라는 도식으로 개인상담자들의 인지구조를 제시함으로써 결과를 이해하기가 용이하고 풍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점 또한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상담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개념도로 확인된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각 범주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내 활동을 구조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요도가 높은 진술문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상담자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상담사의 자기개발과 유능성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상담사들의 전문성 발달 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전문상담사의 척도 개발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개념도의 각각의 범주들은 척도 개발 시, 척도의 구성요소를 채택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권경인, 김창대 (2007). 집단상담: 한국 집단상담 대가의 특성 분석. **상담학연구**, 8(3), 979-1010.
- 강현주, 장성숙 (2006). 상담에서 도움 된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학생생활연구**, 11, 177-201.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 국어대사전**. 서울: 두산 동아.
- 김계현 (1992). 상담교육방법으로서의 개인 슈퍼비전 모델에 관한 복수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4(1), 19-53.
- 김계현, 문수정 (2000).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상담자의 경력수준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18.
- 김아영 (2010). 자기결정성이론과 현장 적용 연구. **교육심리연구**, 24(3), 583-609.
- 김영주, 장재현, 김대원, 이지원 (2013). 초심 상담수련생과 내담자가 겪는 조기종결 경험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157-186.
- 김영진, 왕은자 (2017). 기업상담자의 슈퍼비전 교육내용 요구에 대한 탐색. **상담학연구**, 18(5), 403-421.
- 김인규, 이미현, 정보인 (2013).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상담학연구**, 14(3), 1569-1585.
- 김인규 (2009). 학교상담: 전문상담교사제도 발전방안 연구. **상담학연구**, 1

0(1), 517-534.

- 김인규 (2018). 국내 상담자격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475-493.
- 김진숙 (2006). 성찰적 수퍼비전 접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673-694.
- 김진숙 (2001). 상담자 발달 모형과 청소년 상담자 발달 연구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9-37.
-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상담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9(3), 961-986.
- 김준혜, 안현의 (2013). 상담자 발달수준, 마음챙김 및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인간윤리**, 34(20), 95-159.
- 나현미, 정남운 (2016). 상담자의 성인애착, 상담자 발달 수준 및 공감과 상담초기 내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339-369.
- 노미화, 최연실 (2017).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발달 연구:-근거이론접근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49-164.
- 민경화, 최윤정 (2007). 상담일반: 상담학 연구에서 개념도 (Concept Mapping) 방법의 적용. **상담학연구**, 8(4), 1291-1307.
- 문수정 (1999).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 분석: 상담자의 경력 수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미현, 유현실 (2012). 상담경력에 따른 상담자 발달 수준과 소진의 관계 : 적응유연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6), 3191-3205.
- 백은주 (2016). 영유아교사의 전문적 자아정체성 측정도구 개발. **유아교육연구**, 36(6), 77-96.

- 손은정, 이해성 (2002). 상담자 발달 수준별 사례 개념화의 차이: 개념도를 통한 인지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29-843.
- 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2003). 상담자의 자기 성찰과 전문성 발달. **상담학연구**, 4(3), 367-380.
- 손진희, 김계현 (2001).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의 알아차림 방해요소 추출 및 분류 연구. **상담학연구**, 2(2), 163-180.
- 심홍섭 (1998).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 개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홍섭 (1999). 상담자 교육을 위한 슈퍼비전, **대학생활연구**, 17, 87-117.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오현석, 성은모, 배진현, 성문주 (2009). 최고 수준 전문가와 보통 수준 전문가의 특성 비교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0(4), 105-135.
- 유선옥, 문현기 (2015). 나는 누구인가? **광고연구**, 107, 5-39.
- 우사라 (2015). **상담자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동성애자 상담에 대한 유능감에 따른 상담자의 반응 및 임상적 판단**.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귀, 강승림, 박종철, 이수지, 손하림 (2019). 시설에서 자립을 앞둔 청소년 미혼모의 불안과 욕구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2), 105-124.
- 이명우, 연문희(2004). 상담사례개념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1), 143-155.
- 이은진, 이문희 (2015). 초심상담자의 자기 문제 이해 및 극복과정. **상담학연구**, 16(3), 1-24.
- 이장호, 정남운, 조성호 (2005). **상담심리학의 기초**. 학지사.

- 이재창 (1996). 전문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8(1), 1-26.
- 이형국 (2017). 상담전문가 인력 현황 조사 연구 II: (사) 한국정신건강상담협회의 산하 학회 상담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8(1), 45-66.
- 이형득 (1992). **상담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 임고운, 김지현 (2008). 상담자 발달수준 및 역전이 활용과 상담 성과. **상담학연구**, 9(3), 987-1006.
- 정문주, 조한익(2016). 상담자 발달과 관련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및 상관관계 메타분석. **상담학 연구**, 17(6), 141-164.
- 정찬석 (2005). **청소년내담자가 지각한 상담의 도움측면 탐색연구: 개념도 방법론을 통한 상담자와의 비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천성문, 박순덕, 배정우, 박원모, 김정남, 이영순 (2006).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천성문, 최명식 (2001). 집단상담에서 과도기 단계의 특징과 상담자의 역할. **인문학논총**, 4, 163-184.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최연화, 양명숙 (2013). 원가족 애착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 커플관계증진 프로그램 개발. **한국생활과학회지**, 22(4), 559-574.
- 최윤정 (2019). 국내 상담심리 분야의 개념도 연구방법에 대한 메타분석적 개관. **상담학연구**, 20(6), 179-199.
- 최한나 (2005). 상담자 발달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담학연구**, 6(3), 713-727.
- 함정화, 여한구 (2019). 기독교 상담사의 정체성 형성 경험. **신학과 실천**, (67), 285-318.
- 홍지영, 유정이, 김진희 (2018). 청소년상담자의 상담기록 생성, 관리, 폐기

- 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9(1), 61-92.
- Auxier, C. R., Hughes, F. R., & Kline, W. B. (2003). Identity development in counselors-in-training.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3, 25-38.
- Chi, M. T. H & Glaser, R. F. Farr, M. J. (1988). *The nature of expertise*. Hillsdale. N. J: Erlbaum.
- Corey, M. S., & Corey, G. (2002). *Becoming a helper*.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Crits-Christoph, P., & Mintz, J. (1991). Implications of therapist effects for the design and analysis of comparative studies of psychotherap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1), 20.
- Cummings, A. L., Slemon, Alan. G., & Hallberg, E. T. (1993). Session evaluation and recall of important events as a function of counselor experi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2), 156-165.
- De Charms, R. (1968). *Personal Causation: The Internal dffective determinants of behavior*. NY: Academic Press.
- Deci, E. L. (1975). *Intrinsic Motivation*. NY: Plenum.
- Dodge, J. (1982). Reducing supervisee anxiety; A cognitive behavioral approach.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22(1), 55-60
- Ducan, B. L., & Rees, R. J. (2016). Using PCOMS technology to improve outcomes and accelerate counselor development. In T. Rousmaniere & E. Renfro Michel (Eds.), *Using technology to enhance clinical supervision (pp. 135-156)*.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Epstein, R. M., & Hundert, E. M. (2002). Defining and assessing professional competence. *Jama*, 287(2), 226-235.
- Frensch, P. A., & Sternberg, R. J. (1989). Expertise and intelligent thinking: When is it worse to know better?. In R. J. Sternberg (Ed.), *Advances in the psychology of human intelligence* (pp. 157-188). NY: Psychology Press.
- Fulton, C. L. (2016). Mindfulness, Self-Compassion, and Counselor Characteristics and Session Variable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38(4), 360-374.
- Goodyear, R. K. (2014). Supervision as pedagogy: Attending to its essential instructional and learning processes. *The Clinical Supervisor*, 33(1), 82-99.
- Hill, C. E., Charles, C., Reed, K. G. (1981). A Longitude in analysis of changes in counseling skills during doctoral training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5), 428-436.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 Huppert, J. D., Bufka, L. F., Barlow, D. H., Gorman, J. M., Shear, M. K., & Woods, S. W. (2001). Therapists, therapist variables, an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outcome in a multicenter trial for panic disord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5), 747-755.

- Israel, T., & Selvidge, M. M. (2003). Contributions of multicultural counseling to counselor competence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1*(2), 84-98.
- Johnsen, J. A., Biegel, D. E., & Shafran, R. (2000). Concept mapping in mental health: Uses and adaptation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1), 67-75.
- Jennings, L., Goh, M., Skovholt, T. M., Hanson, M., & Banerjee-Stevens, D. (2003). Multipl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the expert counselor and therapis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1), 59-72.
- Kane, M., & Trochim, W. M. K. (2006).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Thousand Oaks, CA: Sage
- Kane, M., & Trochim, W. M.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Vol. 50, pp. 10-4135). Thousand Oaks, CA: Sage.
- Knox, A. B. (1980). Proficiency theory of adult learning.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5*(4), 378-404.
- Luborsky, L., McLellan, A. T., Woody, G. E., O'Brien, C. P., & Auerbach, A. (1985). Therapist success and its determina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2*(6), 602-611.
- Luborsky, L., McLellan, A. T., Diguer, L., Woody, G., & Seligman, D. A. (1997). The psychotherapist matters: Comparison of outcomes across twenty two therapists and seven patient sample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4*(1), 53-65.
- Martin, J., Slemon, A. G., Hiebert, B., Hallberg, E. T., & Cummings, A.

- L. (1989). Conceptualizations of novice and experienced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4), 395-400.
- Moss, J. M., Gibson, D. M., & Dollarhide, C. T. (2014). Professional identity development: A grounded theory of transformational tasks of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92(1), 3-12.
- Mullenbach, M., Skovholt, T. M., Skovholt, T. M., & Jennings, L. (2000). Emotional self-care patterns of master therapists. *Master therapists: Experts in action*. Boston: Allyn & Bacon.
- Novak, J. (1991). Clarify with concept maps. *The science teacher*, 58(7), 44.
- Nystul, T. G., & Spradling, A. C. (2006). Breaking out of the mold: diversity within adult stem cells and their niches. *Current Opinion in Genetics and Development*, 16(5), 463-468.
- Paulson, B. L., & Worth, M. (2002). Counseling for suicide: Client perspectiv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1), 86-93.
- Pica, M. (1998). The ambiguous nature of clinical training and its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student clinician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5(3), 361-365.
- Rønnestad, M. H., & Skovholt, T. M. (2003). The journey of the counselor and therapist: Research findings and perspectives on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1), 5-44.
- Rubin, J. (2007). Introduction to special issue: Language counseling.

System, 1(35), 1-9.

Skovholt, T. M., & Ronnestad, M. H. (1992).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4), 505-515.

Skovholt, T. M. & Jennings, L. (2005). Mastery and expertise in counseling.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7(1), 13-18.

Skovholt, T. M., & Trotter-Mathison, M. (2011). *The resilient practitioner: Burnout prevention and self-care strategies for counselors, therapists, teachers, and health professionals*. NY: Routledge

Trochim, W. M. (1989).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2(1), 1-16.

Vallerand, R. J., & Reid, G. (1984). On the causal effects of perceived competence on intrinsic motivation: A test of cognitive evaluation theory.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6(1), 94-102.

A Study on Concept Mapping of the Competent Professional Counselors
Perceived by Counselors

Mi Jung Koo

Department of Educational Consulting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dvisor : Seong Moon Ch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confirm the perception of competent professional counselors perceived by beginner counselors and experienced counselors. For this purpose, the concept mapping method was used to visually confirm the participants' perception of a specific phenomenon by classifying concepts into meaningful categories, an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set. First, what kind of counselor is a competent professional counselor perceived by beginner and skilled counselors, and second, how the dimension, cluster, and importance affect perception of beginner and skilled counselor.

To study the concept map, a semantic sentence was derived based on the interview contents of 16 beginner counselors and 16 skilled counselors, and it was produced as a statement card, and then the 16 counselor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similarity, and the structured work was performed to name the classified categories.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each statement to a competent professional counselor was evalua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competent professional counselors is perceived in two

dimensions, such as focusing on 'Professional Qualities' vs 'Human Qualities' and 'Counselor's Self-Development' vs 'Client Problem Solving'. Second, considering the distribution of statements on the map as a result of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and multi-dimensional scale analysis of categories chosen by study participants, four clusters of competent professional counselors were divided. Third, as a result of each statement's assessment of a competent professional counselor, an average of 3.97 was given across four clusters.

This study collects the concepts of competent professional counselors reported through empirical studies and uses concept diagram methods that use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competent professional counselors actually perceived by counselors in a phenomenological way. At the same time, quantitative analysis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s the perception of competent professional counselors in their experience as level, group, and importance, and identifies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beginner and skilled counselors.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unselor's education program in the future, and can also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adoption of components when developing questionnaire scale.

Finally, the suggestion and significance of the limitations and subsequent studie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Counselor, Competent Professional Counselor, Conceptual Diagram

부록 1.

진술문 카드 분류

다음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어 각각 41개와 42개의 진술문으로 나뉘어진 총 83개의 진술문 카드를 분류하시고 따로 분류하고, 아래 공란에 각 범주별 제목과 분류된 카드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① 유사한 진술문끼리 분류

- 40개와 42개의 진술문 카드를 각각 분류하시되, 본인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카드끼리 묶습니다.
- 분류한 묶음, 즉 범주는 적어도 3개 이상은 되어야합니다. 단 전체를 한 범주로 묶거나 (41개를 한 범주로, 42개를 한 범주로 묶는 것), 모든 진술문을 각각 한 개의 범주로 묶음(41개 카드를 41개로, 42개 카드를 42개의 범주로 묶는 것)수 없습니다. 또한 범주를 모두 구성한 후에 남은 카드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 이외의 형식은 없으며,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분류합니다.

② 각 범주의 제목 정하기

- 각 범주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적습니다.

③ 분류작업을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 시행합니다.

부록 2.

평정 질문지

아래의 진술문들을 읽어 보시고, 각각의 진술이 상담자로서 유능한 전문상담사로 얼마나 중요한지 자유롭게 평정하여 주십시오.

번 호	진술문 1 “유능한 전문상담사는 _____ 하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 요 하 지 않 다.	조 금 중 요 하 지 않 다.	조 금 중 요 하 다.	중 요 하 다.	매 우 중 요 하 다.
		0	1	2	3	4	5
1	상담이론에 대해 충분히 습득하고 이를 상담 장면에 활용한다.						
2	상담자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동료 상담자와 공유한다(비밀 보장을 유지)						
3	다른 상담자에게 상담을 조언을 해 줄 수 있다(비밀 보장을 유지)						
4	상담자로서 내담자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5	상담 장면에서의 내담자의 저항을 치료적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적절한 질문을 통해 내담자의 저항을 잘 다룰 수 있다.						
7	유능한 상담사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 내담자 스스로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8	상담사례 구조화를 통해 내담자가 호소하는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운다.						
9	내담자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한다.						
10	내담자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한다.						
11	내담자의 삶을 온전하게 느끼고 이해하며 공감한다.						
12	유능한 상담사는 상담 장면에서의 역전이를 알아차리고 이를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13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번 호	진술문 1 “유능한 전문상담사는 _____ 하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 요 하 지 않 다.	조 금 중 요 하 지 않 다.	조 금 중 요 하 다.	중 요 하 다.	매 우 중 요 하 다.
		0	1	2	3	4	5
14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을 돌보는 힘이 있는 상담자이다.						
15	상담자는 끊임없이 자기분석을 통해 자신을 알아차리는 수련을 한다.						
16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는 자기 수련을 한다.						
17	상담자는 상담 장면에서의 역전이를 알아차리고 이를 통한 자기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18	상담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와 노력으로 새로운 이론, 상담기법 등을 익혀야 한다.						
19	상담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의 축적으로 감수성과 통찰력이 있다.						
20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을 모두 비우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로 내담자를 만난다.						
21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와 평등한 존재라는 마음으로 내담자를 만나야 한다.						
22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를 변화시키고 도울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갖지 않는다.						
23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한계를 인정한다.						
24	유능한 상담사는 일상생활과 상담 장면에서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한다.						
25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버텨준다.						
26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의 태도를 갖는다.						
27	유능한 상담사는 상담을 통해 자기성장을 경험한다.						
28	상담자는 상담을 통한 지식과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할 수 있다.						
29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긍정적인 자원을 찾아내고 이를 상담의 치료적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0	상담경력이 쌓이는 것만으로 숙련자가 되고 유능해질 수 있다.						
31	상담자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야만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번 호	진술문 1 “유능한 전문상담사는 _____ 하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조금 중요하지 않다.	조금 중요하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0	1	2	3	4	5
32	상담자는 자신의 인간적, 기술적, 경험적 면을 모두 상담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						
33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의 기준에서 내담자를 바라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한다.						
34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좋은 모델링 대상이 된다.						
35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표현으로도 내담자를 이해하고 알아준다.						
36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실수보다 유능한 모습, 경험 많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37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38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39	유능한 상담사는 수용적인 언어로 내담자와 신뢰 관계를 맺는다.						
40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끌어내 줄 수 있는 상담자이다.						
41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내담자 스스로 어려움을 적절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상담자이다.						
42	상담자는 인간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야 한다.						

번 호	진술문 2 “유능한 전문상담사는 _____ 노력한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조금 중요 하지 않다.	조금 중요 하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0	1	2	3	4	5
1	상담자는 상담 장면에서 적용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을 받으며 지식을 가진다(비밀보장을 유지)						
2	상담자는 다양한 상담이론과 기법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이론과 기법을 찾는다(비밀보장을 유지)						
3	상담자는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이론과 기법이 아니더라도, 내담자의 특성에 맞는 이론과 기법을 적용한다.						
4	효과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 상담경험(케이스)을 늘리고자 노력한다.						
5	상담자 자기 이해를 위한 교육 분석을 꾸준히 받는다.						
6	상담자는 자신의 상담에 대한 슈퍼비전을 꾸준히 받는다.						
7	내담자에 대한 역전이를 알아차리기 위한 자기점검이 필요하다.						
8	상담자는 다양한 심리검사 실시와 집단상담의 참여를 통해 유능한 상담사로 성장한다.						
9	내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수용적인 언어로 내담자를 대한다.						
10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공감을 한다.						
11	내담자의 언어를 왜곡하지 않고 적절한 공감적 질문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도록 한다.						
12	상담자는 자신을 지각하고 자기 수련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13	내담자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끼기 위해 상담자 스스로 ‘나를 비우려는’ 노력을 한다.						
14	다양한 상담경험을 바탕으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내담자에게 맞는 접근법을 찾는다.						
15	내담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호소문제와 감정에 집중하고,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16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 상담자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수용한다.						
17	유능한 상담사는 상담 전, 상담에 대한 구조화 작업을 통해 내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번 호	진술문 2 “유능한 전문상담사는 _____ 노력한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조금 중요 하지 않다.	조금 중요 하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0	1	2	3	4	5
18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이 내담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정한다.						
19	상담자는 사례개념화를 통해 내담자의 핵심문제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20	내담자의 사소한 감정에도 머무를 수 있는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훈련을 한다.						
21	내담자의 비언어적 표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면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다.						
22	내담자가 가진 강점을 찾아 상담 장면에서 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3	내담자와 상담 시, 다양한 상담기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다.						
24	내담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수용 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25	내담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자신의 감정을 찾아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을 이끌어간다.						
26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지금-여기에서의 상태를 지각하고 머무르게 돕는다.						
27	내담자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효과적인 치료계획을 세운다.						
28	상담자는 내담자의 근기(자아강도)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개입을 하는 능력을 기른다.						
29	내담자의 연령이나 수준에 맞는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0	유능한 상담사는 자신의 감정과 역동을 알아차리기 위해 항상 자기 자각과 자기 점검을 한다.						
31	상담자의 끊임없는 자기 수련하게 되면 내담자와의 신뢰감을 형성에 도움이 된다.						
32	상담자는 일치된 생각과 표현으로 내담자와 소통할 수 있다(진솔성)						
33	내담자의 호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 정서에 맞는 상담 방법을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번 호	진술문 2 “유능한 전문상담사는 _____ 노력한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조금 중요 하지 않다.	조금 중요 하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0	1	2	3	4	5
34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하고 이끌어가는 상담을 하지 않는다.						
35	내담자의 이야기에만 따라가는 상담보다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36	상담자의 성공적인 상담기법을 내담자에 상관없이 주로 적용한다.						
37	상담자는 전문적 상담 기술보다, 내담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38	유능한 상담사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입보다는 내담자의 문제에 함께 머물러준다.						
39	판단하지 않고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상담자가 되기 위해 상담자의 틀(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40	상담자로서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솔직히 인정한다.						
41	상담자로서 인간을 같은 존재로 바라보는 인간애와 상담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부록 3.

면접 참여 동의서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면접은 상담자가 지각하는 **유능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특성들에 대한 것으로 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을 근간으로 각 특성들간의 구조적인 과정을 밝히고자 합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과 2회의 면접을 할 예정이며, 면접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면접 내용은 녹음되며, 녹음된 내용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면접 중에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답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위험이 따를 경우 언제든지 면접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면접 시 녹음된 내용은 연구가 끝나는 대로 소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는 면접에 대한 위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는 본 연구에 자의로 참여하고 면담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참여자 서명

연구자 서명